

그는 핏시가
여태껏 기다려왔던
사람이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사실만
뻔다면...
그래서 그녀는
여러 번에 걸쳐
그를 거절했었다.
그러나 그는
매번 다시금
그녀에게 되돌아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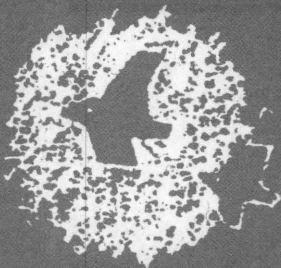
.....

.....

핏시 오다는

일본계 미국 여인으로
국민학교 교사와 선교사를 역임하였다.
그녀는 남편 윌터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 산조에서 살면서
신앙인들의 친교와 성경공부 모임을
이끌고 있다.

영혼으로 다가오는 사랑



목회자료사

영혼으로 다가오는 사랑
Pastor Young G. Kim
Translated by Young G. Kim
Published by Pastor Young G. Kim
with permission of Tyndale House
© Korean Bible Society
Pastor Young G. Kim
38-271 Dong...
Song Book...
Seoul, Korea

Heart's Desire

Korean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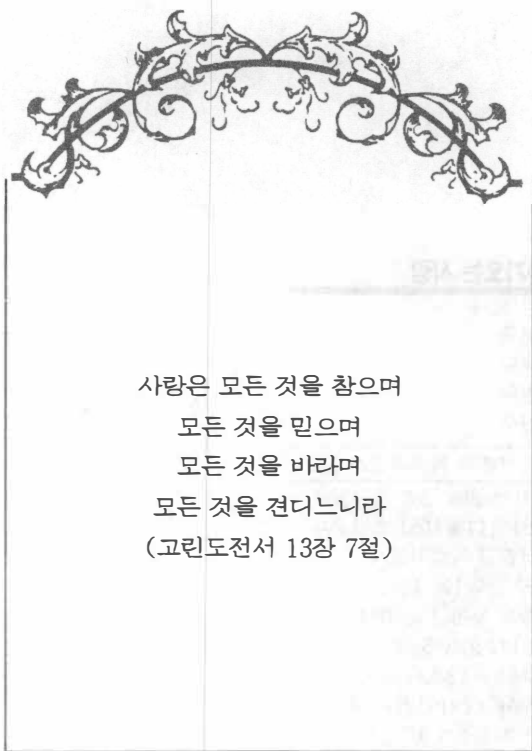
Copyright 2015 Voice Media

info@VM1.global

Web home: www.VM1.global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e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distribut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including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 electronic, or mechanical methods,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except in the case of brief quotations embodied in critical reviews and certain other noncommercial uses permitted by copyright law. For permission requests, email the publisher, addressed “Attention: Permission Coordinator,” at the address above.

This publication **may not be sold, and is for free distribution** only.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영혼으로 다가오는 사랑

지은이 · 팻시 오다

옮긴이 · 박영옥

발행인 · 임세일

편집인 · 박현덕

미술인 · 류인수

저작권소유 · 도서출판 목회자료사 1991

발행일 · 1991년 6월 5일 초판발행

1991년 11월 10일 초판 2쇄

발행처 · 도서출판 목회자료사

서울시 성북구 돈암1동 48-11

팩스 924-6306 우편 136-061

전화 922-6611, 928-5995

출판등록 · 제6-13호(1979.8.16)

제작처 · 양무리디자인스튜디오

서울시 중구 저동2가 48-20

전화 267-0396, 272-8097(팩스)

값2,000원



|| 차례

1. 첫사랑 ————— 7
2. 약속 ————— 17
3. 맞선 ————— 24
4. 이별 ————— 35
5. 서신 교환 ————— 44
6. 방문 ————— 53
7. 성경말씀 ————— 61
8. 유혹 ————— 72
9. 결혼 명세서 ————— 79
10. 유일하신 하나님 ————— 83
11. 순종의 시험 ————— 92
12. 놀라운 섭리 ————— 98
- 끝맺는 말 ————— 110

감사의 글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어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충고해주며, 타이핑해주고 평론도 해주며, 격려해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싶지만, 일일이 밝히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제게 특별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에델 헤르와 “Parts of Speech”의 여류 비평가 여러분, 제럴드 J. 플뤼머 목사님과 산조 오픈 바이블 교회 교우 여러분, 기독교인 작가 협회인 마운트헤르몬의 버지니아 뮌이르와 다른 편집자들과 교사들, 본서의 편집을 맡은 Tyndale House 출판사의 편집자인 캐리 앤 마틴, 나의 사랑하는 동반자 월터, 이 모든 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I. 첫사랑

나는 우아한 웨딩 베일 사이로 남편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무척 오랫동안 애써 왔었지. 그런데 내가 마침내 그와 결혼하리라고 누가 상상인들 했겠는가? 아무와도 결혼할 수 없으리라던 내가 …….’
축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지금까지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어린 시절 단 한 번의 결정 때문에 23년 동안이나 갈등을 겪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 갈등이 이 결혼식을 통해서 끝나리라고 믿는다.

이 모든 일은 어느 무더운 여름 날, 아이들을 태운 연두빛 자동차가 집 앞에 있는 울퉁불퉁한 도로로 천천히 진입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 우리 가족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로디라는 소도시의 변두리에 살고 있었다. 여동생과 놀던 나는 자동차가 오는 것을 보고 놀이를 멈추었다. 백발의 노인이 운전석에 앉아 우리를 보았다. 갑자기 그는 자동차 방향을 틀더니 우리 집 앞으로 와서 멈췄다.

“우리도 내릴게요!”

주근깨 투성이의 한 소년이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외쳤다.

“안돼. 잠깐만 기다려. 곧 집에 데려다 줄게.”

노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차에서 내려 나와 내 여동생에게로 다가왔다.

“아이고, 나 죽겠네!”

뒷좌석 깊숙이 두겹 세겹 포개 얹은 아이들 립바구니에서 누군가

소릴 질렀다.

“꼬마 아가씨, 안녕.”

노신사는 쪼그려 앉으면서 온화한 얼굴로 내게 말을 걸었다.

“이름이 뭐지?”

“팻시예요.”

“오, 팻시! 나이는 몇 살이지?”

“여섯 살이요.”

“애는 네 동생이니?”

그는 델핀을 바라보며 미소지었다. 그때 그 애의 한쪽 발 옆에는 그 애의 인형이 놓여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앤, 세 살이예요. 그리고 제게는 오빠도 한 명 있어요.”

“그래? 팻시야, 부모님은 집에 계시니?”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아با께서 밭에서 캐낸 야채들을 가득 실은 외박퀴 손수레를 밀며 우리를 향해 오고 계셨다. 아버지는 작달막한 키에 사냥용 모자를 쓰고 계셨다.

“아빠가 저기 오세요.”

나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 노인은 일어나서 아바를 맞이했다. 아바는 손에 난 땀을 바지에 쓱 문지르고는 그 노인과 악수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미드 목사입니다.”

“저는 에디 히리수나입니다.”

“이 지역에 새로 이사를 오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4개월쯤 전에 왔습니다.”

“이웃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기서 2마일 가량 떨어진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어요. 댁의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불교 신자입니다.”

아빠가 목사님께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강제 수용소에서 풀려나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뒤에도 절에서는 아직 어린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않고 있지요.”

“예, 그렇군요. 전쟁 중에 우리 나라는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부끄러운 잘못을 저질렀죠.”

“꼬집지마! 일러바친다!”

자동차 안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목사님은 자동차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여전히 아빠와 말씀을 나눴다.

“댁처럼 불교신자이면서 우리 교회에 자녀를 보내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는 자동차에 타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 아이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빠는 먼저 그 애들의 얼굴을 바라본 다음 나를 쳐다보셨다.

“너도 교회에 가고 싶니?”

아빠가 물어보셨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가고 싶었다.

“ 좋습니다. 제 아이들을 데려가세요.”

아빠가 목사님께 말씀하셨다.

그 다음 주일 아침, 나와 오빠 레스터는 스미드 목사님과 함께 교회로 갔다. 그 당시 스미드 목사님은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차고를 수리해 예배실로 이용하고 계셨다. 후에 교회가 성장하자, 그는 예배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스미드 목사님 부부 사이에는 요안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10대 소녀인 그녀가 나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엔 예수가 이야기 책에나 나오는 인물인 줄로만 생각했다. 내 침실의 벽에 오려붙인 동화책의 주인공들처럼 말이다. 그러나 나는 요안의 모습을 지켜보고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녀의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매일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예수가 실제 인물이라한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내 마음은 이런 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후 2년 동안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실제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정말,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나 보다. 성경공부 시간에 요안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말해주었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 압도되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여덟 살이 되었을 때, 내 마음 속에는 나도 요안처럼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요안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다! 정말 알고 싶다!’ 나는 이렇게 마음 속으로 외쳐보았지만, 부끄러워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다. 그 후 어느 주일에 나는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부드럽게 잡아 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느낌은 달콤하면서도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나를 잡아끈 것이 예수님일까?’ 하는 생각이 들자 나는 몹시 궁금해졌다.

“어린이 여러분, 크레용을 제자리에 갖다두고 집으로 갈 준비를 해요.” 요안이 말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예배 후에 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다른 아이들은 출입구로 몰려갔지만, 나는 이번엔야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친구들이 다 간간 다음, 나는 슬며시 요안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오, 팻시!”

그녀는 나를 껴안으면서 환성을 질렀다.

우리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요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펼쳐들고 내게 그 구절의 말씀을 설명해 주었다.

“팻시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하실 만큼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멸망하지 않고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

요안은 또 나를 향해 “팻시아, 너는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너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너의 구세주가 되고 싶어하신다는 것을 믿니?”라고 물었다.

“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우리는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요안은 내 어깨를 감싸안고 기도했으며, 그녀의 기도가 끝난 후에 나도 간단하게 기도했다. 나는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하고,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 되어 내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엄숙하게 간구했다.

그날 스미드 목사님께서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다. 나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려서 집으로 달려갔다. 내가 작은 부엌으로 뛰어들어가고 난 후 낡은 칸막이 문이 광하고 닫혔다.

“엄마! 엄마! 무슨 일인지 맞춰보세요!”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는 발에 계시다가 집에 오셔서 가족들의 점심을 준비하고 계셨다. 엄마의 숱많은 갈색 머리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줄곧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엉클어져 있었다. 엄마는 프라이팬에 야채를 넣고 뒤적이다가 잠시 멈추고 나를 쳐다보셨다.

“무슨 일이지?”

엄마는 흥분한 나의 모습을 미소띤 얼굴로 바라보면서 물으셨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성경책 보이시죠? 스미드 목사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거든요.”

나는 웃으면서 엄마가 볼 수 있도록 새 성경책을 들어올렸다.

그러자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싹 가시고 놀리는 빛이 역력했다.

“뭐라고? 종교를 선택하기엔 넌 너무 어려!”

엄마가 화를 내는 바람에 나는 너무 놀라 말을 더듬거렸다.

“그, 그렇지만……”

“넌 아직 어른들의 일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교 신자여야지.”

순간 나는 현기증을 느꼈다.

“아빠와 내가 너희를 교회에 보낸 것은 착한 아이가 되라고 보낸 거지 예수쟁이가 되라고 보낸 게 아냐!”

나는 엄마가 왜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교회에 다니는 어른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는데 말이다.

나는 풀이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마룻바닥만 내려다 보았다.

엄마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고 말씀하셨다.

“절에서도 주일학교를 곧 개설한다는구나. 그러니 다른 일본 애들과 같이 절에 가거라.”

나는 일본 애들과 함께 절에 다니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웬일인지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옷을 갈아입고 점심 식사하러 오너라.”

엄마는 밥상을 차리시면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네가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알게 될 때까지는 종교를 선택하는 문제는 잊어버리는 편이 좋겠다.”

나는 황망히 방으로 가서 침대에 쓰러졌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은 것이 착각에 불과한 것일까?’ 나는 몹시 궁금했다.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내가 어리단 말인가?’ 나는 벽지에 그려져 있는 동화의 주인공들을 바라보았다.

‘저들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 예수님도 역시 실제 인물이 아니란 말인가?’



그리고 나서 나는 요안의 말을 기억했다.

“나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그는 지금도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시니까.”

나는 머뭇거리다가 옷깃을 풀어헤치고는 블라우스 속에다 대고 속삭였다.

“예수님, 당신은 그곳에 계시나요?”

그러자,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어떤 훌륭한 분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오, 예수님!”

나는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눈을 감고 양 손을 가슴에 모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여기 계시군요,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안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일이 있던 지 수 개월 동안 나는 줄곧 예수님에 관한 말을 했다. 그러나 내 가족과 친척들은 그런 나를 두고 몹시 걱정하며 말했다.

“어린애가 이렇게 종교에 미친 것을 보면 예사 일이 아니야.”

절에서 주일학교가 열리던 날 부모님은 나를 그곳으로 보냈다.

나는 같은 핏줄인 일본 아이들 사이에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편안하면서도 웬지모를 허전함을 느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곳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몇 주간을 그렇게 보낸 다음 나는 내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엄마께 “예수님도 기독교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가 교회에만 다니기를 바라실 거예요.”라고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불교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다 똑같아. 그러니 네가 절에 다니든 교회에 다니든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란.”

그런데 어찌될 일인지 엄마의 말쑥을 듣고 있는 동안 내 마음은 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답답해졌다.

“다른 일본 애들도 너처럼 교회에 다니다가 지금은 절에 다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구나. 그런데 유독 너만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엄마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나는 머리를 숙였다.

“넌 절에 다니는 일본인들이 다 너보다 못한 것같니?”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절대로 절에 가지 않겠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멋대로 해! 나도 네게 절에 가라고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네가 이집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들먹이는 건 보기 싫어. 잘 기억해 뒤, 우리 집안은 불교 가문이란 걸.”

화가 난 엄마는 얼굴빛이 흐려지셨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아무도 너에게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찾아와 하소연하지마. 일본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에 네가 다니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 아니냐.”

엄마는 방을 나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의 뒤에 대고 큰 소리로 불렀다. 그 후 수 주일이 지나도록 나는 교회에도 절에도 가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어느 주일에 스미드 목사님 부부와 요안이 우리 집에 심방을 오셨다. 대학에 공부하러 가 있던 요안이 내가 보고 싶어서 주말에 집에 왔다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나를 교회로 초청하자, 내 부모님들도 하는 수 없이 내가 다시 교회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얼마 후 스미드 목사님은 다른 도시로 이주하셨고 대신 다른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스미드 목사님 일가로부터 느꼈던 따뜻한 분위기를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수 년이 지난 후 예배실 문이 닫혔다. 나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내 가정과 내 친구나 친지들 사이에서 나만 외톨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물려받은 나의 유산과 어울리지 않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도시의 일본계 미국인 사회는 불교 사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거기서 나는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신세였다. 내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같았지만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았다.

교회 없이 몇 년을 지내면서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너무 소홀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절망에 빠진 나는 예수님께 매달려 “예수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라고 간구하였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나는 성경책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다. 나는 곁표지와 모서리가 닳아서 헤어질 때까지 밤마다 성경책을 가슴에 껴안고 잠을 잤다.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없게 되었고 ‘그 동안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다 착각이지 않았는가’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주님께 버림을 받아 이제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는 베개가 젖을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슬픔에 잠긴 나는 침대 요 밑에 감추어 두었던 다 헤어진 성경책을 꺼내들었다. 처음에 나는 성경책에 그림은 하나도 없고 글자만 뻑뻑하게 인쇄된 것을 보고 몹시 당황했다.

그러나 얼마 후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13:5)는 말씀이 눈에 띄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사람이 많은 부모가 어린 자식을 쓰다듬어 주듯이, 이 말씀이 나의 상한 마음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연필로 이 말씀에 밑줄을 그어두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셨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 구절을 기억하였다.

그때부터 나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늘 성경책과 회중 전등을 준비했다. 두려움과 의심이 나를 엄습하는 날 밤이면 나는 언제나 담요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회중 전등을 켜고 밑줄 그은 구절을

찾아서 읽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겨,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나의 첫사랑으로 택한 분과 나의 평생 동안 변치않는 관계는
이렇게 남몰래 시작되었다.



2. 약속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모난 아이”로 따돌림을 당하곤 했다. 아무도 나에게 대놓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지만, 나는 늘 내가 둥근 구멍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네모난 못처럼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곤 했다.

친구들은 불교 청년회에 참석해 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어도 괜찮으니 와 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권유에 따라 불교 청년회에 참석했을 때, 나는 그들 중의 한 사람이 아닌 손님이라는 생각이 들어 서먹서먹했다. 그리고 기독교 청년회에서도 나는 회원들 가운데 유독 나만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웬지 불편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이방인 같았다. 그러나 나 역시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전형적인 10대 소녀였다.

나와 내 친구들은 모이기만 하면 남자 친구에 관한 이야기로 열을 올리곤 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캠퍼스의 멋진 소년에 관해 이야기 꽃을 피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때로 우리는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남편감의 조건을 화제로 삼기도 했다.

“키도 크고 잘생기며 낭만적이고 부자이며 지적이고 또 생각이 깊고 친절하며 유머가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래!”

그러나 백마 타고 오는 왕자를 기다리는 신데렐라와 같은 행복감에 젖어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웬지 만족스럽지 못했다.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그러나 남편감을 선택하는 데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어느 날 나는 기독교인 친구 루이스에게 장래 남편감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나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애는 잠시 생각해 본 후에, “무엇보다도 내 남편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해.”라고 대답했다.

‘얼마나 재미있는 대답인가!’ 나는 그 애가 왜 그토록 이상한 기준으로 남편감을 선택하려고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도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어쨌든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 영원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장래의 남편감을 생각했더니!

그 후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교회에 다니지 않은 수 년 동안, 이전에 주님 안에서 누리던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내 삶은 권태롭고 불안했다. 하나님과 맺었던 따뜻한 관계는 싸늘하게 식었고, 이제는 도리어 부담스러운 습관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주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단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를 써도 교회에 다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질 뿐이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 나는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앎을까 두려웠다. 그 당시 나는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신론 철학에 관한 강의를 듣고서 하나님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는 속단을 내릴까 염려스러웠던 것이다.

10월 말경 루이스가 기독교 학생회에서 개최하는 일 주일 간의 수련회에 나를 초대했다. 나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루이스를 따라



수련회에 참석했다.

일주일 동안 여러 명의 강사 목사님들이 각 분야에서 기독교인의 생활에 관한 진리를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다. 나는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과 습관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방식에 관해 설명하는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 이윽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린 나의 영혼을 참으로 기쁘게 해주었다.

그날 밤 나는 캠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혼자 산책을 하였다. 나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달빛 비치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바위 위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님, 당신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니, 제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 한숨을 내쉬었다.

“하나님, 제발! 저는 하나님 없이는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울부짖었다. “제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때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나는 무릎을 세워 가슴에 대고 양팔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런 상태로 한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 나는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존재의 밑바닥에 있는 작은 샘처럼 솟아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점점 더 높이 솟아올라 올랐으므로 마침내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나는 순식간에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짓눌러왔던 신앙의 회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날아갈 것만 같았다. 나는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에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외쳤다. 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란 소나무 향기가 나의 모든 감각을 새롭게 해주었고 내 삶이 거짓말처럼 소생하는 것 같았다. 미래에 대한 희망에 나는 가슴이 몹시 설레었다.

“주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제 인생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당신이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명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당신이 결혼하라고 명하시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결혼하겠나이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나는 대학 내의 기독교 씨클에 가입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나는 성경공부하는 법을 배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지를 점차 알게 되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아기처럼 나는 뒤통거리는 영적인 다리로 걸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서서히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갔다. 수 년 후 하나님은 나를 교사직으로 한 걸음씩 인도해 가셨다.

그 무렵 하나님은 내 남편감으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를 내게 가르쳐 주셨다. 고린도후서 6장 14~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기독교인과 결혼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도 상기시켜 주셨다.

나는 이 성경 구절들을 늘 마음 속에 새겨두었다.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혼자 고독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왔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어쩌나 하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청혼을 물리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남편으로 택한 사람인지를 물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내가 25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은 나를 영어 교사로 일본에 보내셨다. 그곳에서 보낸 삼년 간의 세월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미국인의 심성을 지닌 채 일본인의 관습을 보고 배웠다. 중매 결혼도 그런 관습 가운데 하나로서 일본에서 아직도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20대 초반의 게이꼬가 영어회화 실습을 하러 왔다. 내게 영어회화를 배우는 다른 어떤 학생보다도 대답하고 호기심 많은 게이꼬는 늘 우리의 수업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나눌까?”

나는 그녀가 좁은 교실 책상 사이를 지나서 의자에 앉는 것을 보면서 그녀에게 물었다.

“저는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녀는 r을 l처럼 발음하면서 말했다.

“Marriage, rr, rr” 나는 그녀의 발음을 고쳐주었다.

“Marriage” 그녀는 r을 분명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입을 일그러뜨리면서 말했다. “저는 선생님께서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신지 알고 싶어요.”

“그래, 나도 언젠가는 결혼할거야.” 나는 ‘그와 같은 조숙한 질문을 하는 것이 게이꼬답다’고 생각하면서 대답했다.

“일본에서는 음 음……선생님이 말씀하시는 marriage bloka를 통해 신랑을 구하는 것이 관습이지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선생님도 알잖아요……marriage broka.”

그녀는 다시 말하려고 애썼다.

“아! 결혼중개인!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중매쟁이(matchmaker)라고 부르지.”

“선생님께서 결혼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선생님을 위해 중매를
서겠어요.”

“게이꼬, 너한테 잘 어울리는 일이겠구나.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연애 결혼을 좋아해.”라고 나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알아요. 선생님도 연애 결혼하실 수 있다는 걸! 그러나
중매쟁이에게 어떤 종류의 신랑감을 원하는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신랑감을 찾아서 그와 그의 부모를 선생님께
모시고 올 거예요.”

‘부모까지! 정말 무서운 압력이군!’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게이꼬에게 “그것 참 편리하겠구나. 그러나 내겐
중매인이 있어. 하나님이 내 중매인이시지.”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뜻을 그녀에게 이해시키려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그러나 2년 후 내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도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나의 옛 친구들은 모두 결혼해서 떠나가고 나 혼자만
남게 되었다. 게다가 하나님은 부모님의 집 근처에 있는, 이전에
몸담았던 학교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다시 농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수업이 없을 때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일본에서 겪었던 잊을 수
없는 일을 회상하곤 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
신랑감으로 정해 놓은 분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갑자기 잠이 깨었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계속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가 직업을 바꾸고 다른 곳으로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궁금했다. 그러나 나는 시골 교사의 직책을 내게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내 마음대로 직업을 바꾸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스물아홉 번째 생일을 맞기 전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에 나는 손에 손을 잡고 상가를 돌아다니는 젊은 남녀들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내 신랑감을 정말로 정해놓으신 걸까’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상가를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온 나는 내게 온 크리스마스 카드가 우편함에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

“아, 게이꼬가 보낸 것이구나!”

나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얼른 겹봉을 뜯고 그 속에 담긴 게이꼬의 글을 읽기 시작했다.

팻시 선생님께

선생님께서 미국으로 돌아가신 지 육 개월이 지났군요.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일전에 제가 선생님께 결혼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여쭙어 보았을 때,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이 중매인이시며 언젠가 신랑감을 골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런 질문을 한 제 무례함을 용서해주세요. 그런데 선생님의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배필을 골라주셨나요?……

“아니, 아직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나는 펼쳤던 편지를 다시 덮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아직……않으셨어.”



3. 맞선

“팻 시는 참 안됐어! 그 애는 하나님이 제 신랑감을 구해줄 줄 알지만, 그 애 하고 다니는 꼴 좀 봐. 아마 결혼하기 힘들걸.” 나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아 모인 친척들이 무심코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이 말을 듣자 내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 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큰소리로 외쳐대었다.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하고 집에 돌아온 나는 침대에 쓰러져서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다.

“주 예수님, 저들이 당신과 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제가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이 마치 당신의 과실인 양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배필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마음 속으로 하나님께서 내 배필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나의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몹시 궁금했다.

“주님, 독신으로 사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기꺼이 독신으로 살겠어요. 그러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게 알려주십시오!”

나는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었다. 내가 전에 만난 일본계 미국인은 모두 불교 신자가 아니면 불신앙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내 상황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또 다시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예수님,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기독교인 남자가 어딘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제계로 인도해오시지 않는다면……이 시골 구석에 살고 있는 제가 어떻게 그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 자기 계획을 내게 계시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제계로 데려오신다구요? 예수님, 제 신앙감을 제계로 데려오실 건가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으며, 하나님께서 내 신앙감을 이리로 데려오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주님,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당신을 만난 이후로 저의 삶은 평범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나는 베개를 껴안고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내 이름을 불러대는 어머니의 다급한 소리에 잠이 깨었다. 내 침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불도 켜져 있었다.

“팻시아, 그만 일어나!”

나는 일어나서 창문을 바라보았다. ‘밖은 아직도 캄캄하다’ 나는 안경을 끼고 시계를 보았다. ‘6시30분. 그러니까 아직 날이 새지 않았지!’

“무슨 일이에요?”하고 나는 어머니께 물었다.

“기예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 밤 네 신앙감을 이리로 데려와도 되는지 알고 싶다는구나.”

내 눈이 번쩍 뜨였다. ‘신앙감을? 하나님께서 신앙감을 내게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이렇게 빨리?’

“어떻게 할래?”

어머니께서 내게 물어보셨다.

“기예꼬가 기다리고 있어. 네 대답을 듣고 신앙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주어야 한대”

“신앙감의 어머니? 왜 그 사람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요?”

“그것은 기예꼬의 결혼 중매 방식이야.”

“뭐라고요?”

나는 눈을 비비면서 말했다.

“기에꼬는 일본인의 예법에 따라 네 결혼 중매를 서겠다는 거지.”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있나 보다! 1970년대의 미국에서 중매 결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어쩌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단 말인가?’

곧이어 내 생각은 5개월 전의 어느 날에 미치게 되었다. 지방 약방(약 외에 담배, 화장품, 잡지 따위도 팔며 차를 마시거나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시설도 있음-역자주)에서 쇼핑을 하다가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인 기에꼬 아주머니를 만났다.

“네게 멋진 남자를 소개시켜 줄게.”

그때 그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일본인의 중매 방식으로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얼른 결정해.”

어머니께서 재촉했다.

“출근 전에 결정을 해야겠대.”

‘주님,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나는 조용히 주님께 묻고, 어젯밤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다. 기에꼬 부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 그렇지만 그 남자가 그들의 친구라 한들 무슨 상관이야?

“기에꼬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어머니는 다시 한번 내게 대답을 재촉했다.

나는 “음……좋아요. 그 남자를 만나겠다고 하세요.”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전화가 있는 부엌으로 급히 갔다.

나는 멍하니 침대에 걸터앉아 기에꼬와 자세한 얘기를 주고 받는 어머니의 흥분한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몇 분 후 전화를 끊은 어머니는 그 소식을 아버지께 전하셨다. 어머니는 기에꼬가 오늘 저녁 7시에 그 남자와 그의 홀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오기로 했다고 급히 전한 다음 서둘러서 차를 몰고 온실로 떠나셨다. 잠시 후 아버지께서도



트럭을 몰고 뽕뽕거리면서 정원 고객들이 사는 도시로 떠나셨다. 그래도 나는 꼼짝도 않고 침대에 걸터앉아 책상에 쌓여있는 교사용 지침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에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일들도 전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다.

책상 위에 나있는 창틈 사이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기 때문에 내 관심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쏠렸다. 날씨가 어떤지를 알아보려고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았더니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다. 몸이 떨리고 서서히 마음 속에 의심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남자는 당신을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어찌지요? 또 그가 당신의 이름을 듣고 불쾌해하면 어찌지요?”

불현듯 고독감이 내 가슴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예수님,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신앙감을 데려온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나는 주제넘은 결정을 내렸다고 후회하면서 작업복을 입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창 밖에서는 또 다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날리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날씨마저 음침한 것을 보니 내 결정이 정말 잘못된 것만 같았다.

나는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지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나는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곤경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소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했다. 들리는 것은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잠시 후,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하필 이렇게 음침한 날에 신랑감을 내게로 보내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기를 좋아하신다!’는 생각이 내 마음 속에 다시 싹터서 불꽃처럼 희망을 복돋워주었다. 그러나 나는 이 희망이 허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얼른 이런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러나 또다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마침내 내가 지워버리려고 했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 생각이 내 마음 속에 불타올랐다.

“팻시아, 나는 너를 위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싶단다. 내게 기회를 다오.” 나는 차츰 놀라움에 젖어들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신랑감일지도 몰라! 결국 그가 내 집으로 오게 되어있지 않은가 말이다’.

아침이 지날 때쯤에는 희미했던 희망의 불꽃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내 의심과 두려움까지 삼켜버렸다. 마음 속 깊이 나는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특별한 만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은 확실하다고 믿었다.

그날 오후 거실 현관을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다가 우연히 현관문을 바라보던 나는 어떤 감렬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두세 시간만 있으면 내 신랑감이 현관을 지나 들어오겠구나!’

나는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올 지 궁금했다.

“예수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의 눈에서 당신의 생명이 번쩍이는 것을 보면 당신께서 그를 보내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기쁨이 용솟음쳤으므로 나는 들뜨고 기쁜 마음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말끔히 치웠다.

저녁이 되자 우리 가족은 식사를 마친 후 서둘러서 설거지를 하였다. 나는 6시 30분경부터 내가 즐겨입는 흰색 블라우스와



버건디 잠바를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응접실을 서성대었다. 아버지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안락의자에 앉아계신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아버지는 아주 멋진 평상복으로 같이입고 신문을 읽고 계셨다.

갑자기 막내 동생 다이애나가 집으로 뛰어들어 왔다. 내가 그녀에게 대학 기숙사에 있지 않고 집에 왜 왔느냐고 물을 새도 없이, 그녀는 “언니 신랑감이 오늘 밤에 오기로 했다며?”하고 불쑥 물었다.

“누가 그러든?”

내가 물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그 애가 나타나서 호들갑을 떠니 웬지 속이 상했다.

“어머니께서 그러시던 걸. 내가 조금 전에 집에 아무 일도 없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언니가 맞선을 본다고 하시잖아.”

다이애나는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다과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다음 냉장고 속을 들여다 보았다.

“언니는 생면부지의 남자와 만난다는 것이 떨리지 않아?”

그녀는 사과를 한 개 꺼내 들면서 내게 물었다.

“아니.”

나는 애써 담담한 척하면서 말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면 어떻게 할거야?”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을거야.”

다행스럽게도 다이애나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았다. 그 애는 부엌 창문가에 앉아 우리 집 앞으로 나있는 골목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동차 불빛이야!”

그 애가 갑자기 소리쳤다.

소파에 기대고 앉아있던 나는 벌떡 일어나서 창가로 달려갔다.

그러나 확하고 지나가는 트럭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다이애나, 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겠니? 초조하게 굴지마.”

내가 짜증섞인 소리로 말했지만 그 애는 계속 길만 바라 보고

있었다.

“기다려봐! 자동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고 있어. 이번에는 틀림없이 그들일거야.”

나는 두리번거리다가 자동차가 우리 집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왔어!”

다이에나는 가족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빴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내게 말씀하셨다고 믿은 것이 옳다면, 나는 이제 내 신랑감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도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마음 속에서 싹트는 근심을 없애려고 애를 썼다.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이면 어찌지?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버지는 신문을 접고 안락의자에서 일어나셨고 어머니는 서둘러서 거실로 나오셨다. 곧 우리는 모두 거실에 모여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자동차 문이 닫히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현관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멎더니 초인종 소리가 났다. 나는 무릎이 후들거리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나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현관에 기예꼬 아주머니와 남편인 톰 아저씨가 서 있고 그 뒤에 내 신랑감과 그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들어오세요.”

내가 말하자 그들은 내게 미소를 지으면서 거실로 걸어갔다. 나는 내 신랑감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호기심이 나서 몇 차례 훑쳐보았다. 그는 중간 키에 인상도 좋았고 술 많은 검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넌졌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팻시, 이쪽은 월터 오다 씨야.”

기예꼬 아주머니가 말했다.



“윌터, 이쪽은 팻시 히라수나 양이에요.”

“만나뵈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는 약간 흥분한 얼굴로 내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저도 만나뵈게 돼서 반갑습니다.”

나는 그와 악수를 나누면서 말했다. 놀랍게도 내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그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바라면서 그의 눈을 쳐다보았지만, 그의 공허한 눈빛에 그만 놀라고 말았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강렬했던 희망의 작은 불꽃(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분이구나 하는 믿음)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사그러들었다.

기에꼬는 다른 사람들도 소개를 했다. 그러자 거실에 모인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악수를 하고 절을 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거실에 손님들의 자리를 마련했다. 다이애나는 코트를 걸고, 나는 다과를 가져오려고 부엌으로 나갔다.

부엌에 혼자 남은 나는 두려운 눈길로 참박을 응시했다. 춥고 캄캄한 밤이었다. 급기야 나는 두려워하던 말을 입밖으로 내고 말았다.

“예수님, 이 사람은 당신을 모르죠, 그렇죠?”

나는 울먹이면서 더듬거렸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만남을 통해 미래에 대한 나의 희망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나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거실로 가서 손님들과 마주앉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나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나서 쟁반을 들고 거실로 갔다.

거기서는 양가의 부모들이 오랜 친구라도 되는 듯이 일본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이애나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윌터의 맞은 편 양탄자 위에 앉아 있었다.

“워싱턴 주 타코마 시에 사신다죠?”

나는 다이애나가 떠들어대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캘리포니아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휴가를 맞아 사크라멘토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윌터가 대답했다. 나는 탁자 위에 쌀과자를 한 접시 올려놓고 뜨거운 녹차와 케이크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윌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윌터 앞에 차와 케이크를 갖다 놓고 소파에 앉았다.

“팻시 씨는 국민학교 선생님이시라죠.”

그는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걸었다.

“예, 3학년 담임이죠. 윌터 씨는 직업이 뭐예요?”

나는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게 여기면서 물었다.

“저는 전기기사입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불안해진 나는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구부린 채 포크를 왼손에 들고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연히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먹기만 했다. 케이크를 다 먹고난 후 그는 나를 바라보고 말했다.

“삼 년 동안 일본에서 교직에 몸담고 계셨다고 다이애나 양이 그러더군요.”

“예, 육 개월 전에 돌아왔어요.”

나는 침묵이 깨졌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대답했다.

“그곳에서 사진을 좀 찍으셨나요?”

“예, 보여드릴까요?”

“예, 보고 싶군요.”

나는 앨범을 가지고 와서 그의 곁에 앉았다. 우리는 별 부담없이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앨범을 넘기고 나는 영어를 가르치고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보낸 일본에서 찍은 사진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내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려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일본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일본에 갔었던 것이라고 말해도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의 눈빛을 보면서 나는 그가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었다. 일본서 찍은 사진들을 전부 보여주고 더 이상 그에게 보여 줄 것이 없게 되었을 무렵에는 하나님께서 월터를 내게 보내주셨으리라는 희망도 사라져버렸다.

저녁 내내 나는 실망감을 감추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다행히도 수다스러운 다이애나가 대화를 이끌어갔다.

마침내 손님들이 떠날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월터는 떠나기 전에 내게 이틀 후에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의 어머니도 현관문을 나서면서 허락한다는 듯이 내게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현관 문을 닫기가 무섭게 다이애나가 물었다.

“언니, 그 사람 어때?”

“멋있더구나.”

나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은 팻시와 잘 어울릴거다.”

어머니께서 의견을 말씀하셨다.

“좀 얼떨떨하지?”

다이애나가 농담을 했다. 나는 동생의 짓궂은 말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나도 적당하고, 키도 알맞고, 학벌도 좋고, 가정의 배경도 그만하면 된 것 같구나.”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아빠 생각은 어때요?”

나는 아버지께서 장래의 사위감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해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여쭙어 보았다.

“나도 마음에 든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읽다 만 신문을 마저 읽기 위해 응접실로 가셨다.

“언니가 지금 약혼을 한다면, 방학이 시작되는 6월이면 결혼을 할 수 있겠네?”

다이애나가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다이애나야, 너무 서둘지 말거라! 서로를 좀 알아야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니.”

어머니께서 다이애나를 나무라셨다. 어머니께서는 내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라. 그리고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 빨리 그 사실을 그 사람에게 통보해 주도록 해라. 그 사람 나이가 서른셋이래 네가 싫다면,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셨다.

“알았어요, 엄마.”

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찻잔과 접시들을 모아서 부엌으로 가져갔다. 어머니와 다이애나도 남은 다과를 들고 부엌으로 왔다. 우리는 부엌에서도 계속 말을 주고 받았지만, 나는 월터와 결혼하지 않기로 이미 마음먹고 있었다. 나는 그가 나의 결혼 상대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한 날에 그에게 그 사실을 말해 줄 작정이었다.



4. 이별

“주님, 월터가 곧 이리로 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와 결혼할 수 없다는 말을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에게 사실대로 말하라—하나님께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말이다.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주님, 그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광신자로 취급할 거예요. 그쪽에서 먼저 저를 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항의하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한 번 더 간구하였다.

“주님, 그쪽에서 먼저 제게 무관심하게 해주세요.”

현관문을 열자 월터의 옷차림이 눈에 띄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모두 새 것이었다. 짙은 감색의 스포츠 코트와 페이즐리 무늬의 넥타이, 그리고 체크 무늬 바지와 심지어 번쩍이는 검은 구두까지 모두 새 것이었다.

나는 잔뜩 긴장했다.

“안녕하세요, 팻시 씨.”

그가 미소띤 얼굴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차를 타고 한 시간 가량 달려서 사크라멘토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검은 색 턱시도를 입은 웨이터들이 시중을 들었다. 그곳의 음식과 분위기, 서비스는 모두

만점이었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월터가 내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은 눈치인데 어떻게 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해야할지’ 걱정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을 하려고 몇 번이나 입을 열었지만, 그때마다 매번 “멋진 레스토랑이군요.”라는 말만 연발했다.

“오늘밤 기분이 괜찮으신지요?”

월터가 근심스런 어투로 내게 물었다.

“예, 좋아요.”

나는 그의 섬세함에 감격하면서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그의 섬세함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자리를 뜨면서 월터가 말했다.

“식사를 잘하셨는지 모르겠군요.”

“맛있었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러나 접시에 담겨있는 음식물을 보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저녁 내내 음식에 손도 안댄 것 같았다.

우리가 레스토랑에 있는 동안 짙은 안개가 온 시내를 뒤덮었다. 월터는 애써 앞만을 응시하면서 천천히 차를 몰았다. 차를 타고 가면서 안개에 대해 몇 마디 말을 주고 받았을 뿐, 그외에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이러다가는 그에게 말할 기회를 놓치고 말겠구나!’ 나는 조바심이 났다.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거짓된 희망을 갖고 타코마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어!’

집에서 불과 2.35마일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불쑥 말을 꺼냈다.

“월터 씨, 긴히 할 말이 있는데요.”

“하세요. 하지만 당신의 집에 당도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될까요? 지금은 도로 상황에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그렇게 하세요.”



나는 어쩔 줄을 몰라 의자 깊숙이 앉았다. ‘어쩔 내가 그렇게 경솔한 짓을 했담?’ 나는 마음 속으로 나 자신을 호되게 꾸짖었다.

마침내, 우리는 집에 도착했다. 그는 엔진 시동을 끄더니 내게 “자, 이제 말씀하세요.”라고 말했다. 그의 심각한 얼굴 표정을 보고 나는 그가 불길한 소식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잠시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시면 안될까요?”

나는 생각지도 않던 제안을 했다.

“좋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은 이미 잠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나는 응접실로 월터를 안내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도 우리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내가 부드럽게 말하려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동안 월터는 참고 기다렸다.

마침내 나는 입을 열었다.

“제가 일본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보셨으니 제가 기독교인인 줄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반드시 기독교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도 아시겠지요?”

“아니, 몰랐습니다.”

그는 이런 말이 나오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듯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땀이 축축히 뻐 양손을 내려다 보았다. ‘주님,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우선 당신이 기독교인인지 알고 싶군요.”

나는 주저하면서 말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특유의 간결한 말투로 대답했다.

“저는 댁이 기독교인이 아닐까봐 두려웠어요.”

나는 눈을 내리깐 채 말했다.

“그러면 당신과 결혼할 수 없거든요……다 당신도 마찬가지겠지요.” 나는 다시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월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저는 당신에게 매달리고 싶지도 않고, 당신에게서 다른 여자를 만날 기회를 뺏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가 더 점들기 전에 헤어지는 편이 현명한 일일 거예요.”

나는 말을 끝냈다.

미간을 지푸린 채 그는 벽난로에서 꺼져가고 있는 불꽃을 응시하고 있었다.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왜 저와 만날 생각을 하셨지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해요. 저는 댁을 하나님께서 우리 집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남편감으로 오해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을 했다구요?”

월터는 놀라서 소리쳤다.

“아니,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얘기를 하자면 길어요. 알고 싶으세요?”

“물론이죠”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를 만나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그는 잠자리에 들어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어린아이처럼 열심히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말을 마치자 월터는 놀라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것 참 놀라운 일이군요.” 그가 말했다.

“그렇지만 당신은 아직 제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말해 주지 않았어요. 어떤 목소리를 들었나요?”

“아녜요. 그것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오랫동안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사이의 침묵 속의



공감이라고나 할까요.”

윌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만 응시했다. 나는 또 다시 당혹스럽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다.

“여러 사람을 괴롭혀서 정말 죄송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집안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나는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일어섰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내게 손을 내밀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을 알게 돼서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저도 그래요.” 나는 그와 악수를 나누면서 말했다.

나는 그를 현관으로 안내했다. 그는 문을 열고 작별 인사를 한 후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가 짙은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가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 현관 문에 기대어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슬픔이 밀려왔다. ‘불쌍한 윌터! 그렇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야 하다니!’

다음 날 아침, 내가 침실에서 막 나오려고 하는데, 다이애나가 갑자기 침실로 들이닥쳤다.

“언니, 어제 데이트 어땠어?”

“좋았어.”

“언니, 그 사람이 타코마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만날거야?”

“아니, 우리가 공통점이 별로 없나봐.”

나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꾸미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엄마, 얘기 들으셨어요? 팻시와 윌터가 헤어졌대요.”

내가 그 애의 입을 막을 새도 없이 그 소식이 부엌에까지 전해졌다.

“무슨 문제가 생겼니?”

내가 부엌에 들어가자 어머니께서 물으셨다.

“네, 그는 제가 원하는 타입이 아니예요. 물론 저도 그가 원하는 타입이 아니구요.”

나는 광신적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은 입 밖에 내지도 않고 말했다.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아라. 완전한 사람이란 없단다.”

“저도 알아요, 엄마.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빨리 그에게 말해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침 식사 후, 나는 차를 몰고 학교로 갔다. 나는 무언가 바쁘게 움직일 만한 일이 필요했다. 교실에 들어서니 크리스마스 휴가 전에 깨끗이 지운 칠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소매를 걷고 칠판에 새로운 강의 내용을 기록했다. 그리고 나서 이를 동안 나는 내 일에 생각과 에너지를 온통 쏟아부었다.

크리스마스 휴가가 끝나는 일요일의 날씨는 어둡침침하였다.

다이애나와 내가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접시를 닦고 있는데 월터가 차를 몰고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나는 언니와 월터 씨의 관계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이애나가 놀라서 소리쳤다. 그러면서 그 애는 장난기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래.”

나는 행주에 얼른 손을 닦으면서 말했다. 나는 험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하나님, 그가 왜 돌아왔을까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하죠?’

나는 창문 사이로 그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우리 집을 향해 걷고 있는 그의 모습은 웬지 침울해 보였다. 다이애나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돌아간 후 나는 문을 열기 위해 현관으로 갔다. 곧이어 나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팻시 씨. 잠시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오래 머물 수는 없어요. 타코마 행 비행기를 타러가기 전에 산요세에 사는 형에게 차를 돌려주어야 하거든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나는 흥분한 모습을 감추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나는 그에게 거실에 있는 낚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대화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부엌 쪽으로 나있는 미닫이 문을 닫았다.

우리는 잠시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가 말을 꺼냈다.

“저는 지난 나흘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토록 빨리 헤어지기 위해서 만났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괜찮으시다면, 댁과 교제를 해보고 싶군요. 편지 왕래를 하면 어떨까요?”

윌터는 내 대답을 기다리면서 내 표정을 살폈다.

나는 뜻밖의 제안에 너무 놀라서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손만 내려다 보았다. 나는 나 자신도 이 사람과 교제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필사적을 주님께 매달렸다.

‘주 예수님,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저도 댁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싫지는 않지만, 결혼할 수 없는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이 웬지 마음에 걸리는군요.”라고 대답했다.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쓰면 그것은 문제될 게 없지 않아요.”

그의 말은 논리가 정연했다. 그래서 나는 편지쓰는 간단한 행동에 대해 두려워하는 나 자신을 가만히 꾸짖었다.

“좋아요.”

나는 마침내 양보했다.

“친구로서라면 얼마든지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두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만두기로 해요.”

우리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나서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잠시 후에 윌터는 시계를 보더니 일어섰다.

“지금 떠나야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비행기를 못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과 다이애나 양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그는 허둥지둥 차를 향해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외쳤다.

“곧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나는 무엇인가에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니 서서, 월터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현관문을 닫았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라고 나는 주님께 말했다.

내가 생각을 정리할 새도 없이 갑자기 미닫이 문이 열리더니 다이애나가 뛰어들어 왔다.

“그 사람 왜 그렇게 금방 갔어?”

그 애는 숨이 넘어갈 듯이 다급하게 물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나서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애썼다.

“비행기타러 가야 한대.”

다이애나가 호기심이 나서 견딜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반짝거렸다.

“그럼, 무슨 일로 왔는데?”

“편지 왕래를 할 수 있는냐고 묻더라.”

“그래서 언니는 그러기로 했어?”

“그랬나봐.”

다이애나가 의미있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애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태연한 척하려고 애썼는데 그렇지 못했나 보다.

“아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나는 책망하듯이 말했다.

“우리 두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든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친구로서 편지를 왕래하겠다는 거야. 그 이상은 아니야!”

“언니는 그 사람과 공통점이 없다고 말했잖아!”

그 애가 계속 섬가시게 물고 늘어졌다.

“그래. 하지만 그렇다고 편지 몇 장 못쓸 것도 없지 않니.”

나는 극구 변명을 하였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지 왕래를 원하시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가 트랙터 차고 뒤로 갔다. 그곳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아버지의 호도나무 과수원이 보였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나는 종종 이곳에 오곤 했다. 우리의 만남의 장소인 이곳은 오늘 진흙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잔뜩 찌푸린 하늘이 보였다.

“주님, 무슨 일인지 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외쳤다. “왜 그를 돌아오게 하셨지요? 도대체 무슨 편지를 쓸 수 있단 말입니까?”

큰 빗방울이 코에 떨어졌지만,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전에는 그곳을 떠나지 않을 셈이었다.

하나님에게서 극적인 대답은 듣지 못했지만 내 마음을 괴롭히던 문제들은 말끔히 씻겨버리고 부드러운 평화가 내 마음에 깃들었다. 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5. 서신 교환

1971년 1월 4일

팻시 씨에게

휴가 기간 동안 당신을 만나뵙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훌륭한 가족이고 아름다운 집이더군요.

그날 저는 비행기표를 사려고 비행장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타코마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는 사 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 저는 사크라멘토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10년간 일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혼자 요리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와의 서신 교환을 승낙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텅빈 집에
돌아와서 당신의 편지를 받아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지로 당신에 대해 제게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윌터 드림



1972년 1월12일

월터 씨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할지 모르겠군요. 저도 우리의 만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직접 요리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독신 남자가 저녁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저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전쟁 중에 아르칸서스에 있는 한 이동 캠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 전후에 로디로 이사하시고 그 후에 이 농장을 사셨죠. 저는 줄곧 이곳에서 자랐어요. 수 년 전에 낡은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었죠.

저는 전형적인 일본계 미국인 3세 소녀들답게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한 가지만 제외하고서 말입니다. 8살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때문에 그동안 독특한 경험을 했죠.

제게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레스터라고 해요. 오빠는 지금 프레스노에서 유리 상회를 경영하고 있어요. 율케 언니의 이름은 헬렌이에요. 제게는 또 두 명의 여동생이 있는데, 큰 동생은 벨핀이에요. 그 애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잡지사에서 편집일을 맡고 있어요. 막내 동생은 다이애나인데, 그 애는 사크라멘토 주립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죠.

저는 7년 전에 사크라멘토 주립대학을 졸업하면서 교사자격증도 땀습니다. 그 후 줄곧 저는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아셨겠지요
이번에는 당신이 제게 말해줄 차례입니다.

팻시 드림

1972년 1월20일

팻시 씨에게

당신의 편지를 받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요리사라는 말로 댁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밥하고, 라면 끓이고, 계란을 부치고, 고기를 굽는 일 외에 다른 요리는 할 줄 몰라요. 대개 저는 며칠 동안 점심과 저녁에 먹을 고기를 한꺼번에 구워놓지요. 다행히도 제 친구들이 자주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주기 때문에 맛있는 가정 요리를 맛볼 수 있어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사크라멘토에 있는 한 농장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제게는 맨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시고 형제가 다섯 명 있습니다. 저는 밑에서 두 번째이고 유일하게 미혼입니다. 제 부친은 제가 대학에 다닐 적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12년 전에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졸업한 후 사크라멘토에서 전기기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타코마에서 일을 하고 있죠. 제 취미는 낚시입니다.

당신의 인생 경로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이 8살밖에 안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대목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음 소식을 기다리면서 이만 총총.

윌터 드립



1972년 1월 26일

윌터 씨에게

당신의 인생 경로에 관한 글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요리사는 아닐지 몰라도 실습만 충분히 하시면
타코마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일류 요리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어느 차고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
나이 6살이었을 때, 부모님은 스미드 목사님이 차고에 세운
교회에 참석하도록 허락해주셨지요. 2년 동안 교회에 다니던 끝에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므로 제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구요.
어느 주일에 주일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 후 집에서
저는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님이 제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이 제
본향이 되었음을 어렵풋이나마 알게 되었답니다.
저에 대해 충분히 아셨겠지요! 당신에 대해 제게 또다른 얘기를
해주세요. 전기공사는 어떻게 하나요? 특별한 공사를 맡아서
바쁘지는 않으신지요?
멋진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팻시 드림

1972년 2월 5일

팻시 씨에게

저는 오늘 '전기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회사가 문을 닫았거든요.

저는 지금 제 아파트의 창가에 앉아 눈내리는 광경을 보면서
당신의 편지를 또 읽는답니다. 저는 당신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기독교인들도 당신처럼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당신이 이 편지를 내팽개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우편 배달부가 우체통에서 이 편지를 꺼내가면 좋겠군요. 제가
편지를 보내자마자 당신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또 편지를
받자마자 당신이 답장을 쓰고, 당신이 답장을 쓰자마자 제가
그것을 받아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편지를 기다리면서.....

월터 드림

1972년 2월 8일

월터 씨에게

당신은 아직도 눈에 갇혀 있나요? 저는 당신에게 곤란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당신이 지난 번 편지에서 제기했던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어요.
기독교인은 누구든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듭난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놓쳐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법을 훈련해야 하지요.
저는 이미 그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 결혼
상대자로 보낸 것이라고 착각했을 때처럼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저는 눈에 갇혀있지는
않지만 당신의 소식이 곧 오기를 기대합니다.
멋진 눈 휴가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팻시 드림

1972년 2월 16일

팻시 씨에게

눈 휴가는 사흘간 계속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직장에서
돌아와 보니 편지가 와 있더군요. 이렇게 빨리 답신을 보내주신 데
대해 뭐라 감사의 말을 드려야할지 모르겠군요.
저는 당신처럼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우월한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기 설계 기사인 저로서는 진화론을 굳이 곧대로 믿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자연의 놀라운 조화와 정교한 설계가 우연히 생겨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이 짐승들에게 본능에 따라
알고 행동하도록 가르쳤다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또 눈이 오고 있군요. 눈송이를 보고 있자니, 언젠가 읽은
대목이 생각나는군요. 눈송이는 하나하나가 독특한 무늬를 지니고
있으며, 똑같은 무늬를 지닌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어디엔가 창조자의 정신이 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또 직장이 문을 닫을지 모르겠군요. 답장을 빨리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월터 드림

1972년 2월 24일

월터 씨에게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이 '자연의 신비가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 라고 말한 대목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를 확인시키기 위해 이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일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동물들에게 본능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꼭 필요한 존재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본능적으로 매어달리도록 창조하셨는데, 당신은 그것을 아시지요?

유명한 물리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은 피조물로 메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제 생각에는 그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들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던 텅빈 구멍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당신의 회신을 기다리면서……

팻시 드림



1972년 3월 12일

팻시 씨에게

제가 당신과 편지 왕래를 하기 전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지요. 저도 언젠가 이 세상의 종교들을 조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찾게 될 날이 오겠지요. 그때까지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만 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편지 왕래를 하자고 제안할 때는 이처럼 재미있는 편지를 받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요즈음 저는 '편지만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가끔 만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두 주 이내에 제 어머니를 뵈러 사크라멘토에 갈 계획입니다. 그때 저는 당신도 만나고 싶군요. 당신의 가정을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월터 드림

1972년 3월 19일

월터 씨에게

언젠가 하나님을 찾게 되리라고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온 세상을 샅샅이 뒤질 필요는 없었지요. 하나님은 바로 당신 곁에 계시니까요.

제가 대학에서 세계의 종교들에 대한 강의를 듣기 전에는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위대한 종교들의 많은 창시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조차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진리들을 추구하고 내세에 대한 해답을 구했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죠.

하나님은 종교 철학도, 거룩한 느낌도, 우리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모호한 개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땅에 편만해계신 분이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싶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제게 당신을 만나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들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 사는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방문에 대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루속히 당신과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팻시 드림

1972년 3월 25일

팻시 씨에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만남을 승락하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번 금요일 밤에 비행기를 타고 사크라멘토로 갈 예정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당신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윌터 드림

6. 방문

뜨거운 스끼야끼 냄새가 온 부엌 안에 가득했다. 게다가 나는 배가 몹시 고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시계를 쳐다보았다. 1시 30분! 식탁 중앙에 있는 스투 냄비에서 스끼야끼를 한 숟가락 떠내어, 연하고 쭉이 많으며 향기좋은 쇠고기를 열심히 베어 먹으면서 나는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월터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밖에서 자갈밭의 소리가 들렸다. 다이애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커튼 사이로 내다보았다.

“월터 씨가 오셨어.”

그 애는 식탁 저편에서 내게 말했다.

“누군데?”

숙모님께서 물었다.

“워싱턴 주 타코마 시에 사는 팻시의 남자 친구예요.”

“그 사람은 내 남자 친구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휴가 때 만났던 남자예요.”

내가 고쳐서 말했다.

“워싱턴에서 너를 만나러 온 것을 보면 네게 무척이나 관심이 있는가 본대.”

숙모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예요, 사크라멘토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러 온 거예요.”

나는 현관으로 가면서 말했다.

“부엌으로 모시고 와, 그래야 우리가 모두 그 분을 볼 수 있지.”

델핀이 식탁에서 소리쳤다.

“나도 여태껏 그분을 보지 못했던 말야.”

내가 문을 열자 월터는 웃으면서 내게 초콜릿 상자를 내밀었다.

“이것 받으세요.”

‘오, 안돼! 지금 모두들 그를 내 남자 친구로 생각하고 있던
말야!’

나는 마음이 초조하여 그에게 고맙다는 말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잇을 뻔했다. 그는 뜰에 있는 자동차들을 돌아보면서 거실로
걸음을 옮겼다.

“오늘 댁의 가족이 모이는 것을 몰랐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숙부님과 숙모님께서 방문차 오셨고 동생들이
주말이 되어 집에 온 거예요.”

“아, 식사 중이시군요. 제가 너무 일찍 왔나 봅니다.”

내가 그를 부엌으로 안내하자, 그가 시계를 보면서 말했다.

“아녜요. 저희 식사가 늦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그를 택 숙부님과 요 숙모님과 델핀에게
소개했다.

“윌터 씨, 스기야끼가 많아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앉아서 드시오”

아버지께서 권하셨다.

“괜찮습니다. 좀 전에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식사하시는 동안
잡지나 읽고 있겠습니다.”

그는 부엌 끝에 있는 응접실로 걸음을 옮겼다.

내가 요 숙모님의 옆자리로 돌아와 앉자, 숙모님은 팔로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큰 소리로 속삭였다.

“애야 그 사람 짱 붙잡아라! 훌륭한 신랑감이다!”

델핀과 다이애나는 웃음을 참느라고 킁킁거렸다. 나는 살짝
미소지으며 윌터가 이 말을 들었을까 궁금했다. 나는 윌터가 식사
중에 온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스기야끼를 두세 숟갈 더 먹고나서
숟가락을 놓았다.

“산책하시겠어요?”

내가 윌터에게 물었다.

“좋지요.”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내 뒤를 따랐다.
밖은 정원 모퉁이마다 봄기운이 완연했다. 공기는 맑고 신선했다.
우리는 뒤뜰을 거닐다가 멈추어서 햇빛 비치는 쪽으로 고개를
숙인 채, 우리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나팔수순화를 정신없이
바라보았다. 월터는 어머니가 가꾼 일본식 정원 앞에 있는
구부러진 큰 소나무 아래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카메라가 있으면 이곳에서 당신의 사진을 한 장 찍고
싶군요.”라고 그가 말했다.

나는 태연하려고 애썼지만 그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다.
남자로부터 내게 사진을 찍어 주고 싶다는 말을 들은 것은
오랜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미소로 그
말을 묵살하고 들로 나갔다.

“아버지께서는 채소 농사를 그만두시고 나서 벚나무를 심고, 그
뒤에다 호두나무를 몇 그루 심으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작은 농지를 가리키면서 설명했다.

“그렇군요.”

월터는 시골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대답하였다.
우리는 트랙터 차고 반대편에 있는 호두나무 과수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서쪽을 향해서서 연녹색 잎사귀들로 덮여있는
호두나무 너머……, 이웃 콩밭의 철조망 너머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얼굴에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였다.

“저는 평화스러운 이곳을 무척 좋아해요.”

나는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저는 하나님과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이곳을 즐겨
찾는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는
우울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의 눈길은
다정했고, 내 말에 관심이 있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곳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장소로 월터를 데려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른 입을 다물었다. 그는 비밀 장소를 알려준 것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듯이 내게 미소를 보였다. 그러나 나는 웬지 마음이 불안했다.

“여기 앉으시겠어요?”

나는 차고 옆에 있는 오래된 상자를 그에게 내밀어 주며 다른 상자에 앉았다. 한참 동안 우리는 말없이 앉아서 나무들 사이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해서 합니까?”

월터가 조용한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제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이지요.”

나는 말하면서 얼굴을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월터가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팻시 씨, 당신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군요.”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또다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괴로웠다.

“저는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봐요.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라고 내가 말했다.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세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음, 이를테면 결혼 상대자를 어떤 식으로 고르세요?”

나는 갑자기 대답해진 내 태도에 놀라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월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먼저 여자의 조건들을 일일이 따져본 다음, 조건이 마음에 들면 그녀에게 청혼하는 거죠. 뭐, 어려울 것 있습니까?”

그는 말을 멈추고 내게 윈크했다.

나는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었다. ‘그는 내게 청혼할 마음이 없었던 게 확실해!’ 나는 마음이 초조해서 일어나 상자를 차고 뒤쪽으로 옮겼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물었다. “그동안 많은 아가씨들의 조건을 따져 봤겠군요. 최근에도 처녀들과 만나셨나요?”

“아닙니다. 친구들이 중매를 서겠다고 했지만 번번이 제가 거절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상자를 들어 내 곁으로 가져왔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웬지 마음이 불안했다. 태연한 척하려고 애써도 잘 되지 않았다.

“당신은 절 본 적이 없으니 저를 알 턱이 없을 텐데, 지난 번엔 왜 절 만나겠다고 하셨지요?”

나는 그의 맞은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들을 바라보았다.

그가 내 곁으로 다가와서 섰다.

“저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에꼬 아주머니가 새벽에 전화를 했더군요. 너무 즐려서 당신을 따돌릴 좋은 구실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날 저녁에 다른 계획도 없었구요.”

그가 놀리듯이 말했다.

나는 그에게 살짝 미소를 보내면서, 그의 접근을 막아야 하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그는 내 팔짱을 끼더니 내 눈을 뻔히 들여다 보았다.

“제가 당신을 만나기로 한 이유야 어찌되었든 제가 이리 와서 당신을 만나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라고 그가 말했다.

갑자기 그가 나를 끌어안았다.

.....

소나무 사이로 미풍이 불었다. 그 소리는 먼 데서 들리는 물줄기 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팔에 안겨서 나는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나는 속으로 이러면 안 된다고 소리질렀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해! 그와 한 배를 탈 수는 없어! 그러면 하나님없는 그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고 말거야!’

나는 그의 팔을 풀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내게는 그를 밀쳐낼 힘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언니! 월터 씨! 어디 계세요?” 다이애나가 차고 맞은 편에서 우리를 찾고 있었다.

“우리 여기 있어!”

나는 월터가 포옹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소리쳤다.

다이애나가 우리 있는 쪽으로 왔다.

“엄마가 애플파이 먹고 싶은지 알아 오래.”

“당신은 어떠신지 모르겠군요, 월터 씨. 하지만 전 간식을 먹고 싶어요.”라고 내가 말했다. 그제서야 내가 점심을 거의 먹지 못했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저도 좋아요. 저도 애플파이를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다이애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우리가 거실에서 애플파이를 먹고 있는데, 부엌에 계시던 요 숙모님이 방으로 들어오셨다.

“애야, 오늘밤 내 전문 요리인 오리 구이로 저녁 식사 준비를 할테니, 음식 맛을 좀 보거라.”라고 요 숙모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월터 씨에게 저녁 때까지 놀다 가시라고 해라.”

“아, 저는……안 되겠는데요……”

월터가 나를 쳐다보면서 입을 열었다.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내가 말했다.

“그래요. 저녁 때까지 계시다가, 함께 식사하세요.”라고 요 숙모님이 권했다.

“글쎄요, 제가 머물러도 된다면.”하고 월터가 다시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저녁 때까지 계실 거예요.”라고 다이애나가 월터 대신 결정을 내렸다.

월터는 우리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TV를 시청하면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다.

다른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정말 멋진 하루였어요.”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면서 그가 말했다.

“저도 즐거웠어요.”

나는 배려를 아끼지 않는 그의 태도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말했다.

잠시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의 생활이 얼마나 공허할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이런 관계는 지속되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나는 눈을 딴 데로 돌렸다.

“이제는 당신이 저를 방문할 차례예요.”라고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계속 편지할게요.”

나는 그에게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얼버무렸다.

그는 손으로 내 턱을 살며시 치켜올린 다음 부드럽게 내게 입을 맞추었다.

나는 ‘이 사람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고 속으로 외쳤다.

나는 그에게 이 말을 하려고 했지만 차마 할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을 놓친다면 나는 절대로 딴 사람을 만나지 못해! 절대로!’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잘자요.”라고 그가 속삭였다.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올게요.”

나는 말없이 그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침실로 돌아온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나를 떠나고 말았다. 나는 월터에게

장래를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했다.

“주 예수님,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말을 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내가 말했다. 그러나 월터와의 즐거웠던 순간에 대한 기억이 내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 슬픔이 복받쳐 올라왔지만, 사실 나는 월터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나의 마지막 기회일거야!’

나는 괴로워하며 침대에 쓰러져 울었다.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팻시아, 넌 이제 장래를 내게 말길 수 없겠니?”

불현듯 내가 하나님을 정말 화나게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나는 월터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 그러나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내 잘못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훌륭한 신임을 내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나를 맡기지 않으실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내 실책이었어.’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한 하나님을 위해서 울었다.

“주님, 당신을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항상 저를 이토록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당신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제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간 적이 없으셨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위를 올려다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맹세했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제 미래, 제 결혼, 제 인생 전부를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서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나는 평온을 되찾았다.

7. 성경말씀

1972년 4월 3일

팻시 씨에게

당신, 당신의 가족, 당신의 숙부님, 숙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 주세요.

특히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신 요 숙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 때 요 숙모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더군요.

타코마로 돌아온 후, 저는 독감에 걸렸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당신 없는 이곳에서 또다시 추위와 맞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내내 당신 생각만 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보고 싶군요. 어서 빨리 당신을 다시 만날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곧 편지 보내주세요.

월터 드림

1972년 4월 10일

월터 씨에게

감기는 좀 어떠세요? 저는 당신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입니다.

서신 교환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친구로서 편지를 주고 받기로 한 일이 기억나시죠. 그러나 당신이 지난 번 방문 때 보여주신 태도나 편지 내용을 보면 친구 이상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군요.

월터 씨,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이상, 당신과는 결혼할 수 없음을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인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관계들이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의미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유익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경을 통해서 하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결혼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합니다. 서로간에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지요.

제가 결혼을 염두에 두고 당신과 교제를 한다면, 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제게는 너무나 큰 희생인 것입니다.

저는 친구로서라면 얼마든지 당신에게 편지를 쓸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를 결혼 상대자로 생각한다면,



언제라도 편지쓰는 일을 중단하겠어요. 그러니 당신이 결정을 내리세요.

팻시 드림

1972년 4월 18일

팻시 씨에게

당신은 보잘것 없는 책 한 권,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낡아빠진 책 때문에 저와 헤어질 생각을 하는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옛날에 쓰여진 책에 들어있는 규칙을
현대의 당신 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친구로서 계속 편지를 쓰겠습니다. 시대는 변했어요.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 어떻게 현대인에게 적절한 충고를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감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편지를 보내주세요

당신의 친구 월터 드림

1972년 4월 26일

윌터 씨에게

우리 사이에 끼어든 이 책은 보잘것 없는 책이 아니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책이죠.

사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책을 기록의 형태로 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업적과 생각과 감정과 뜻, 그리고 계획과 인격을 계시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시대는 변했어요. 시대 사조도 달라졌구요. 인간의 철학은 항상 변하죠. 그러나 인간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안내서”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데올로기들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으며 도덕이 타락하고 있는 이 불안한 세상에서, 저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변함없는 교훈서를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동 기준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윌터 씨, 친구로서 제게 앞으로 계속 편지를 쓰기로 하셨다니 기쁩니다. 저는 당신의 재미있는 편지들을 다시는 못받아 보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은근히 서운했거든요.

곧 답장을 보내주세요.

팻시 드립



1972년 5월 5일

팻시 씨에게

지금 우리가 같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는 대학 시절 한 때 성경을 읽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책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더군요. 사실 말이지 그 책은
다소 지루한 감이 들었어요.

무엇을 보고 당신은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생각하세요?
증거가 있습니까?

편지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군요. 제게 당신
사진을 한 장 보내주시겠습니까?

곧 답신을 보내주세요.

월터 드림

1972년 5월 14일

월터 씨에게

성경을 읽은 소감이 별로 좋지 않으셨다니 유감이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이미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당신이 보기에 성경은 매우 이상하게 여겨졌겠지요. 물론 당신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할 수도 없었겠구요.

그렇지만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면,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성경을 쓸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최근에 이르기까지 과학자들조차 우리의 몸이 땅의 흙과 똑같은 화학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래 전에 그 사실을 말했었지요. 우리를 맨 처음에 만드신 이유를 하나님 외에 또 누가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창조로부터 최후의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세계사를 하나님 외에 또 누가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묘사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시기에 걸쳐 절대적인 진리로 입증된 도덕 법규들을 일일이 명기하실 수 있었던 분이 하나님 외에 또 누구이겠습니까?

국가들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늘과 지옥, 천사와 악마들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권위있는 글을 쓸 수 있었던 분이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인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책을 쓸 수 있었던 분이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생활 환경이나 연령이나 문화와는 상관없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계사를 통틀어 보아도 수많은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책을 쓸 수 있었던 분이 하나님 외에 또 어디 있던 말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살아있으므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을 가지고 말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경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더 자세한



이유들을 적은 팜플렛을 하나 동봉해서 보내겠습니다.
즐거운 날이 되시고 곧 답장을 보내주세요.

팻시 드림

1972년 5월 22일

팻시 씨에게

당신이 보낸 두툼한 편지 봉투를 받는 순간, 저는 그 안에 당신의 사진들이 들어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재미있는 팜플렛과 편지만 들어있더군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게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언제까지나 얼굴없는 사람과 편지왕래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편지를 읽으며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세요? 곧 회답을 보내주세요.

월터 드림

1972년 5월 30일

월터 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이시며 감정과 지력과 뜻을 갖고 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우리도 영원한 영을 지니고 있고 감정과 지력과 뜻을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자 독자적으로 우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감정도 없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없는 프로그램된 로봇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서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뜻깊은 관계를 맺고 멋진 일들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우리 앞에 그의 계획이 드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모험이 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편지 왕래를 위해서 ‘얼굴’을 요구하시니 참 재미있군요.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얼굴’을 제공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일본에서 찍은 스냅 사진을 한 장 동봉했습니다.

멋진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팻시 드림

1972년 6월 11일

팻시 씨에게

또다시 재미있는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당신의 예쁜 사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야 제가 당신께 편지를 쓸 때나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앉아서나 지나다니면서 당신 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벌써 6월이군요. 방학은 언제하세요? 여름 휴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7월 첫 주에 저는 산요세로 잠시 출장을 다녀올까 합니다. 가는 김에 그곳에 살고 있는 리차드 형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집까지 가는 데에는 두 시간밖에 안 걸리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는 당신을 만날 시간이 없군요. 멋진 사진을 보내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곧 편지 보내주세요.

월터 드림

1972년 7월 16일

월터 씨에게

제가 당신께 편지를 보내지 않은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군요.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지내기는
했지만, 몹시 바빴거든요.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이전의 제자들과 친구들이 저를 보러
일본에서 왔어요. 덕분에 저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명승지들을
두루두루 구경했지요. 미국에 처음 와본 사람들이라 무척
즐거워하더군요.

7월 첫주에는 당신이 산요세로 출장을 오셨는지 궁금했어요. 당신
형님과과의 만남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여름이 되시기를 바라며.....

팻시 드림



1972년 7월 30일

팻시 씨에게

그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셨다니 다행이군요. 저도 역시 오랫동안 편지를 쓰지 못했군요.

저도 그동안 바빴거든요. 지난 번 편지를 쓴 이후로 제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산요세로 출장을 간 이유는 같은 직종의 새 직장을 구해보려고 그곳에 있는 회사에서 면접시험을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 말에 산요세로 이사할 예정이며 9월 5일부터 새 직장으로 출근하게 될 것입니다.

정착이 되는 대로 일간 당신을 찾아뵙고 바뀐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저의 이동에 대해 기뻐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곧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월터 드립

8. 유혹

월 터가 우리 집을 방문하여 내게 이사한 집 주소를 건네주면서, 다시 들러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오랜 편지 친구가 가끔 방문하는 것을 하나님도 막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면서 “물론이죠.”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월터는 주말마다 우리 집을 방문하는 단골 손님이 되고 말았다. 나도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람있는 한 주간을 보내고 난 후에는 그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모든 일은 우리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웬지 내 마음은 불안했다. ‘틀림없이 하나님도 내 남자 친구를 싫어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합리화하였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가족이 있는 집에 머물고 있을 뿐인걸’

수 개월을 그렇게 보내면서 나는 월터가 나를 여전히 결혼 상대로 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밤 당신을 차에 태워 내 집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는 가끔 이런 농담을 하곤 했다.

“편지 친구에게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의 유혹을 점잖게 뿌리치면서 농담으로 받아넘겼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때때로 나는 이러다가 결국 결혼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웠다. 그때마다 나는 애써 그의 공허한 눈에 주의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할 경우 내 인생이 얼마나 공허할까를 생각하곤 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끌리는 것을 막는 보호막 구실을 한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이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중얼거리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4학년 선생님이 방과 후에 내게 왔다.

“팻시 선생님, 당신과 주님 사이에 모든 일이 잘 되어가나요?”

기독교인인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요즈음 웬지 불안해 보이거든요”

내가 남의 눈에 쫄 만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서 나는 머리를 숙였다.

마침내 나는 월터와의 우정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시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앞뒤가 바뀐

셈이었다. 그러니 요즈음 내 생활이 엉망진창이고 무미건조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월터가

오면 이제는 자주 만나지 말자고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토요일 오후에 부엌으로 들어가던 나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식탁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다.

우유를 따르다가 나는 우연히 할머니 오바칸이 일본어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수기야마 내외도 초대해야지?”

“물론이죠. 그분들도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언제나 우리를
초대했잖아요.”

어머니가 명단에 그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일본어로 대답하셨다.

“그분들을 무슨 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어머니께 여쭙어보았다.

“응, 너와 월터의 결혼식에 어떤 사람들을 초대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좀 해봤어.”

어머니께서 겸연쩍게 대답하셨다.

“우리가 결혼할 거라고 누가 그래요?”

“결혼하지 그래.”

델핀이 응접실에서 잡지를 훑어보면서 말했다.

“내가 집에 올 때마다 언니와 월터씨는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처럼 다정하게 앉아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걸.”

“그래, 언니. 나도 그 분을 형부라고 생각하고 있어.”

다이애나가 과자를 아삭아삭 씹어먹으면서 덧붙여 말했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아요. 친구일 뿐이에요.”

나는 내 태도를 분명히 밝히면서 우유를 들고 식탁에 앉았다.

할머니가 식탁 맞은 편에서 부드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셨다.

“패히야” 할머니는 내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서 엉터리 영어로 말씀하셨다.

“나는 와타를 훌륭한 청년이라고 생각해.”

“예, 할머니 와타는 훌륭한 청년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왜 할머니에게 말할 때마다 나까지 엉터리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했다.

아버지께서 신문에서 눈을 떼고 나를 바라보셨다.

“결혼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를 만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신문을 집어드셨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월터와 나는 모두들 잠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우리만 남게 되자 월터가 내게 웃으며 말했다.

“이번 주 어땠어요?”

나는 차분하게 얘기를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물었기 때문에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했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이런 식의 만남을 계속 가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도?”

“예. 오늘밤 우리 리노로 도망갑시다.”

그가 농담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을 보니 그 말이 전혀 농담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월터씨, 저는 심각해요.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결혼할 사이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겠지요. 다른 처녀들을 만나보셨어요?”

그는 내 팔짱을 끼더니 내 눈을 찬찬히 들여다 보았다.

“내가 다른 처녀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몰라요? 팻시 씨, 사랑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결혼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계속해야 하나요?”

“다른 남자와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당신이 언젠가 내 아내가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만 나는 그를 껴안고 그의 희망없는 꿈과 우리의 헛된 관계를 생각하며 울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옆치락뒤치락거렸다. 자는 것을 포기한 나는 불을 켜고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찾았다. 그런데 빨간색 밑줄을 그은 구절에 내 눈길이 멎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내게 남편을 데려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나를 위로해주곤 했던 말씀이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 10:36-37)

과거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하신 때보다 늦게 실현되지는 않으리라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라는 말씀이 나의 잘못을 일깨워 주는 것처럼 보였다.

“주님, 제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월터와의 이 불신앙적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다.

“그렇지만……그렇지만 월터는 하나밖에 없는 제 친구입니다!

그를 만나지 않고……그의 편지를 받지 못하고……그의 우정 없이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마음이 허전했다.

나는 불을 끄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월터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속삭였다. 고요한 밤중에 무엇인가가 나를 부드럽게 잡아당긴다는 느낌이 들었다. ‘팻시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거냐? 우리는 어떻게 되는거냐? 우리는 어떻게 되는거냐?’ 나는 그것이 예수님임을 알았다.

나를 잡아당기던 것이 곧 내 깊은 곳에서 고동치는 열정이 되었다. ‘팻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해……우리는 어떻게 되는거냐?’

나는 흐느끼면서 말했다. “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월터가 더 이상 우리 사이에 끼여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까.”

나는 불을 켜 다음 가운을 입고 책상 머리에 앉았다.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월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1973년 1월 19일

월터 씨에게

이 편지로 우리의 모든 인연을 끝낼까 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관계를 지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결혼할 수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도록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우정과 저와 제 가족들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친절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 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헤어지기 전에 이 말만은 당신께 꼭 해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났다가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거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없는 사람은 없으며, 심판을 거치지 않고 죄없는 순결한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떠맡고, 우리 대신 “죄”의 심판을 받아, 우리 대신 죽음의 형벌을 당하도록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영원한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이미 받으셨으므로, 우리를 “죄없다”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 궁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1-13). 월터 씨, 저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영생을 당신이 받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친구여, 그럼 안녕히. 당신을 위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팻시 드림

다음 날, 이 편지를 우체통에 집어넣고 난 후 나는 지난 4개월 동안 나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월터의 편지가 있는지를 보려고 매일 우편함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월터에게서 작은 소포 한 개가 왔다. 나는 그것을 움켜쥐고 트랙터 차고 뒤에 있는 나만의 비밀 장소로 달려갔다. 상자에 앉아서 나는 소포를

뜯었다. 내가 그에게 준 사진과 팜플렛이 땅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것들을 주워들고 그 사이에 편지나……메모라도 없을까 해서 열심히 찾아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월터가 글 하나 써 보내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다. 앞으로는 다시 내게 편지를 쓰거나 나를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서 왜 지금 와서 가슴 아파하는 것일까? 눈물이 앞을 가려 내 앞에 있는 황량한 과수원조차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억지로 위를 쳐다보았다.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다. “주님, 제가 위에서 오는 봄의 징조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을 의지하겠나이다.”

나는 서서히 내 마음 속에서 월터를 지워버리기 시작했다. 내 몸의 한 부분이 떨어져나가는 것 같았다.

“예수님, 당신은 당신과 함께 하는 제 생활이 순탄하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제 신뢰를 골라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약속만 있으면 됩니다.”

평화로운 느낌이 내 마음 속에 파고들어 따뜻하게 해주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잡아주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9. 결혼 명세서

월 터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게 신랑감을 요구하려면 좀더 구체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주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멋있고 기독교인이고 일본계 미국인, 이보다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정도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많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신랑감을 보내준다 해도 너는 그인지 아닌지를 어떤 식으로 식별할 수 있겠느냐?’

그날 밤 나는 내가 무엇을 신랑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목록을 작성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백지 한 장을 올려놓고 맨 위에 나의 신랑감이라고 썼다. 그리고 나서 나는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1. 기독교인
2. 일본계 미국인
3. 마음이 온유한 사람
- 4.

“4번이라,” 큰소리로 중얼거렸다. “생각좀 해보자……”

‘나는 어떤 종류의 기독교인을 원하지? 열의없는 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 헌신적인 기독교인이거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도해주셨다.

나는 4라는 숫자 옆에다 ‘헌신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썼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저를 일본으로 보내실 때처럼 성경을 통해 분명한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결혼하지 않겠어요.” ‘5.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답을 얻은 경우’라고 쓰면서 나는 말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저의 마음을 평화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제 배필로 믿겠습니다.” 나는 6이라는 숫자 옆에 ‘평화’라고 썼다.

‘너는 키가 어느 정도나 되는 사람을 원하지?’ 하나님은 내게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내려고 캐물으셨다.

“저보다 3내지 6인치 큰 사람.”

‘나이는?’

“저보다 2살내지 6살 더 많은 사람.”

나는 계속 적으면서 말했다.

‘특별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저처럼 일본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저녁 식사 때마다 식탁에 앉아 제가 좋아하는 생선회를 보고 토하는 사람이면 곤란하거든요.”

‘특별히 싫은 것은?’

“주님, 당신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긴 성을 갖고 싶지 않아요. 일본인의 성 가운데에는 열자도 더 되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처녀 때의 성보다 더 짧은 성을 갖고 싶어요.” 나는 10이라는 숫자 옆에다 그렇게 썼다.

‘내가 그를 네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상기시켜주셨다.

“예!” 나는 그것을 적으면서 말했다.

‘그밖에 또 없느냐?’ 주님이 물으셨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없지만, 일본에 있을 때 당신이 저보고 기도하라고 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당신이 한밤중에 저를 깨워 제 남편감이 죽음의 위협에 처해있으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세요? 기도를 마친 후 제 마음이 거짓말같이 평안해진 것을 보면 당신이 그의 목숨을 구해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12라는 숫자 옆에다 ‘기적적으로 죽음을 피한 사람’이라고 썼다.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생각나지 않아서 나는 그 명단을 접어서 벽장에 있는 책상자에 잘 숨겨두었다. 우연히 남의 눈에 띄어 비웃음을 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화로운 가운데 수 개월이 지나고 -2월, 3월, 4월, 5월, 6월 - 또 다시 여름방학이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지 않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안달하지도 않고, 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만족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지냈다. 그렇게 방학을 보내던 나는 7월 초 어느 날 저녁에 뜻하지 않은 전화를 받았다. 이 전화 때문에 나의 평화롭던 세계가 심하게 뒤흔들렸다.

“안녕하세요, 팻시 씨. 요즈음 어떻게 지내요?”

그것은 월터의 목소리였다.

“저어, 잘 지내요.” 내가 말했다.

“당신은 어때요?”

“저도 잘 지냅니다.”

그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결혼 상대자를 만났는지 물어보아도 괜찮을까요?”

나는 월터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려 나타난 것만 같아서 두려웠다.

“아니요……아직 못만났어요.” 나는 고백했다.

“당신은요?”

“저도 못 만났습니다.”

나는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그에게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팻시 씨, 저는 그 동안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불쑥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주변에는 당신밖에 기독교인이 없거든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편지로 대답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에게 다시는 편지를 쓰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속으로 끄끄 앓았다.

“당신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말을 불쑥 내뱉고 말았다.



10. 유일하신 하나님

1973년 7월 7일

팻시 씨에게

다시 제게 편지를 쓰겠다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지요. 그런데 텔레비전 뉴스라든가 기근과 전쟁과 지진, 그리고 죄와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당신의 그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왜 이다지도 불완전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까? 제게 대답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월터 드림

1973년 7월 12일

월터 씨에게

만일 성경이 이 세상의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저도 그 이유를 몰라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이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동기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 수는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에 따라 아담을 창조하시어 그를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몹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이 완전한 세상에서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권한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사탄의 반역에 가담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반역 행위로 말미암아 아담과 온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이 세상의 지배권은 사탄의 손아귀로 넘어갔습니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지배권을 사용하며 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영향을 미치는 사탄은 하나님을 넘어뜨리고 그의 창조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모든 거짓말의 아버지, 최초의 살인자, 그리고 흠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온 도적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왜곡된 철학들(삶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질병과 재앙과 전쟁을 물러일으키는 것)로 가득 채웁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사탄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수많은 가짜 종교들을 만들어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오도하여 종교적인 체험들과 느낌들을 근거없는 것으로 조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인질로 잡힌 당신의 자녀들을 지금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아 죽음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기록된 진리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빛의 천사”로 자처하는 이 교활한 자의 음흉한 거짓말을 간파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속자 예수님이 제공해주시는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대속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이 폭로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기록된 진리인 성경은 인격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속량과 성경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심으로써 사탄이 활개치는 이 세상 나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사탄이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장차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무찌르시고, 사탄이 더이상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편지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 편지가 당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팻시 드림

1973년 7월 20일

팻시 씨에게

재미있는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서 비술과 불교와 또다른 초자연적인 마술이 판을 치는 것을 보면서 악령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마귀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이 이토록 악하고 무질서한 이유도 확실하게 밝혀지겠지요. 지난번 편지에 거짓 종교들에 대해 말씀하셨더군요. 어떻게 일개 인간이 어떤 종교를 참되다 혹은 악마의 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대답이 있기를 바라면서.....

월터 드림

1973년 8월 1일

월터 씨에게

종교의 성패는 창시자의 일대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 믿음이 시험을 당하던 지난 수 년 동안 저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종교들의 창시자들에 대해 얼마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밝혀진 사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종교 지도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만물의 창조자라고 주장한 종교 지도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 세기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셨고, 기적적인 출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 예고하신 수 많은 예언들을 이룬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준으로 역사는 양분되었습니다. 주전과 주후로 말입니다.

완전하고도 기적적인 삶을 산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병자를 치유했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고,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시련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는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사흘 동안 죽음에 머물러 계시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을 한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간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추종자들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추종자들을 그만큼 많이 거느린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살펴볼 때, 예수님을 믿다가 돌에 맞아죽고 십자가에 달리며 사자에게 먹히고, 화형을 당하며 박해받고, 버림받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며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월터 씨, 당신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당신을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목숨도 버리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을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피흘리고 못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들 가운데 유독 예수님만이 지금도 살아서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제게서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의 의문점들에 대해 직접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스스로 대답을 찾으려 하지 않으세요?

팻시 드림

1973년 8월 10일

팻시 씨에게

우리의 편지가 사무적이 되다보니 당신의 안부를 묻는 것도
잊었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름방학은 즐거우세요?
제게 많은 것을 알려주셔서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저는 예수님이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비길
데 없는 분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등록하기 전에 먼저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곧 편지 보내주시기 바라며……

월터 드림

1973년 8월 21일

월터 씨에게

제 안부를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건강하며 조용한 여름
방학을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지내시지요?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생각하신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관계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교리를 믿고 심지어 성경을 문자적으로 따른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기독교인이 아님이 분명하지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일일이 따랐지요.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지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기독교인은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데 신학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불과 8살 때였다는 것을 아시지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분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당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영, 곧 성령으로 당신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당신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요1:12) 교리를 배우러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살아계신 구세주를 영접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녀보아야 당신에게 별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팻시 드림

1973년 9월 2일

팻시 씨에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중요한 정부 프로젝트를 맡았기 때문에 직장 일이 바쁘답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로디를 지나 어머니가 계시는 사크라멘토에 자주 가곤 합니다.

제가 엔지니어라서 그런지 모든 일,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기술적인 설명을 듣고 싶군요. 보다 기술적 용어로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 영접”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편지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로디에 있는 교회에 참석해도 될까요? 곧 당신 주시기를 바라며

월터 드림

1973년 9월 12일

월터 씨에게

한 주간 내내 저는 전기 설계 기사에게 기술적 용어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까 몹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기독교인들의 관계를 본떠서 결혼관계를 세우셨다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배우자를 받아들이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모두 개인적인 선택과 서약의 행위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영적인 결합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완성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서로를 선택하여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소중히 여기며 다른 모든 사람을 버리고 오직 상대방에게만 신실하겠다는 혼인 서약을 함으로써 서로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고 그를 사랑하며 존경하고 그의 뜻을 따르며 사탄과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설명이 당신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효과적이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 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주일학교는 9시 30분에 시작되고 예배는
10시 45분에 시작됩니다. 저희 집으로 9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팻시 드림



II. 순종의 시험

나와 함께 교회에 참석해도 되겠느냐고 묻는 월터의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그가 기독교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결혼하라고 요구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월터가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뻐지만, 그와 결혼할 생각을 하니 웬지 눈앞이 캄캄했다. 그를 친구로만 여겼지 아직 사랑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복잡한 심경을 가다듬기 위해 트랙터 차고를 지나 호두나무 과수원으로 갔다. 호두나무에는 나뭇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벌써 거둬들일 때가 다 되었나 보다. 이미 노랗게 물이 든 잎사귀들도 있었고 낙엽이 되어 땅에 떨어진 잎사귀들도 있었다.

나는 마른 흙 위를 터벅터벅 걸으면서 중얼거렸다. “왜 월터와 결혼하기를 원치 않지? 그는 멋진 사람인데 말야.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언젠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없으면 못살 것 같은 사람과 결혼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하지만 그를 다시 만나 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월터를 만났을 때 나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그다지 즐겁지 않았다. 그가 여전히 내게 관심을 갖고 있고, 주일이 지날수록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한편으론 몹시 괴로웠다.

나는 마음이 불안했다.

“하나님, 제발 저더러 월터와 결혼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 애걸했다.



월터가 나와 함께 교회에 출석한 지 네 번째 되던 주일에 하나님께서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내 마음 속에 질문을 던지셨다. 나는 무서워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팻시아, 월터가 기독교인이 되면 그와 결혼하겠느냐? 나는 내 곁에 앉아있는 월터를 흘끗 바라보았다. 어찌된 일인지 그에 대한 내 감정은 호두나무 밑에 떨어진 낙엽처럼 쓸쓸하게 식어버린 것 같았다. ‘그러나 주님, 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교회문을 나서면서 월터는 다음 주일에는 출장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주간 동안 그의 모습을 보지 않고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그러나 그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매번 통과할 수 없는 죽음의 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행복한 미래는 꿈꿀 수가 없었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택해주실 사람을 기다려온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단 말인가?

팻시아, 너는 네 남편감을 선택해달라고 늘 내게 말했었지. 하나님은 내가 한 말을 삼기시켰다. 그 사이에 네 마음이 변했느냐?
“아니예요. 주님,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주시리라고 믿었어요.” 나는 쌀쌀하게 대답했다.

그 다음 주일에 나는 혼자 교회에 갔다. 내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인지 설교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예배를 마친 후, 나는 재빨리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출입구 쪽으로 갔다. 그때 나는 과거에 트리니대드에서 선교사로 일했던 한 부인과 마주쳤다.

“오, 팻시아. 그동안 잘있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예, 잘지냈어요. 당신은 어땠어요?”

나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당신의 멋진 남자 친구는 오늘 보이지 않네요?”

그녀가 천천히 물었다.

“출장 준비 관계로 올 수 없거나 봐요.”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나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이 부인과 상의해보자. 이 부인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 온 분이고 어찌피 알아야 할 일이니까.’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나는 주저하면서 말했다.

“물론이죠, 무슨 문제인데요?”

그녀가 상냥하게 대답했다.

“저,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판단을 따를 것인지의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렇군요.”

나는 나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그녀의 일반적인 대답에 실망했다.

“결혼의 경우는 어떨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요구하실까요?”

나는 또다시 애매하게 물었다.

“오, 당신은 지금 당신과 함께 교회에 오는 그 멋진 청년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녀는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렸다는 듯이 물었다.

“예, 그래요.” 나는 솔직히 시인했다.

“자, 봐요. 하나님은 때때로 신비스런 방식으로 활동을 하곤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해요.”

그녀는 눈을 깜박이면서 말했다.



그녀가 의미있는 미소를 짓는 것을 보고 나는 그녀도 윌터와의 결혼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괜히 그녀에게 그 문제를 상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요일까지 나는 여러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강요하신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다. 내 질문하는 방식 때문에 이렇게들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을 해주었는데도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마침내 금요일 밤에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말았다. 나는 침대에 몸을 던진 채 마구 울어댔다.

‘왜 너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느냐? 하나님은 네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어하는데.’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큰 소리로 불평하다가 마침내 제풀에 지쳐서 침대 위에 축 늘어져 있었다. 고요한 방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조용히 하나님께 말을 걸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기적이고 버릇없는 아이처럼 행동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난 몇 주간 동안 당신께 버릇없이 굴어서 죄송합니다.”

마음 속에서 용서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우리를 떼어놓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주님, 저는 정말로 제 신앙감의 선택권을 당신께 맡기고 싶어요.”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깃들기를 바라면서 말했다. ‘애야, 넌 그렇게 할 수 있단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천천히 양손 바닥을 펼쳐서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위를 쳐다보면서 내가 말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이 선택해 주신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제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상관

없습니다.”

‘윌터라도?’

“에……윌터라도.”

마른 땅에 내린 단비처럼 평화가 내 마음 속에 깃들었다. 그러나 윌터를 향한 내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 주 토요일 밤에 윌터는 내게 와서 기독교에 대한 또다른 질문을 했다. 그를 보낸 후 나는 몹시 낙심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너무 느릿느릿 다가가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이 년이나 되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일에 윌터는 나와 함께 교회에 갔다. 목사님이 축도를 마치고 난 다음 회중을 죽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 성도님들께 저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저는 강단에 계속 있을 테니까 오늘 아침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은 분은 이리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배실 문을 향해 몰려갔다. 내가 나가려고 하자 윌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팻시 씨, 여기서 잠시 저를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목사님과 기도를 하고 오겠습니다.”

나는 너무 뜻밖이라 어안이 빙빙했다. 그리고 윌터가 긴 통로를 지나 목사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내 친구들이 흥분한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나는 목사님이 윌터와 악수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처음 시작될 때처럼 내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우르릉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



진동은 월터가 통로를 지나 내게 다가오면서 점점 더 격렬해졌다. 갑자기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우리 사이의 통과할 수 없던 벽이 갈라져서 산산조각이 나더니 마침내 땅으로 무너져내렸다. 그 순간 내 앞에 서 있는 월터는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다. 나는 그의 눈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늘 죽은 듯이 공허하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다시 태어나 반짝반짝 빛이 났다. “축하해요!” 나는 이토록 스스로없이 그를 껴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축하를 할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서 있었지만 한시도 그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마음 속으로 속삭였다. ‘지금 저를 월터에게로 잡아당기는 이 느낌은 무엇일까요?……제가 지금 그를 사랑하는 걸까요?’



I2. 놀라운 섭리

월터 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새로운 우정을 맺게 되었다. 때때로 그는 예배를 마친 후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집을 방문하여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곤 했다. 나는 그의 곁에 있는 것이 좋았으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어주시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점차 월터는 사랑한다는 말을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12월 초 어느 주일 오후에 우리는 뜰을 거닐다가 마침내 나의 비밀 장소인 트랙터 차고 뒤로 오게 되었다. 월터는 내게 상자 한 개를 내밀면서 앉으라고 권하고, 자기는 다른 상자를 잡아 담겨 내 곁에 앉았다.

그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깊어가는 가을의 시골 풍경을 바라보았다. 소박하고 평화로운 광경이었다. 호두나무 아래는 다갈색 잎사귀들로 온통 뒤덮여 있어서 땅이 보이지 않았다. 철조망 너머에 있는 이웃집 콩밭은 이미 추수가 끝나서 콩깍지들이 다발로 묶인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참 지난 후에 내가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로 몸을 돌리더니 내 손을 잡았다.

내 눈에 눈물이 어렸다.

“월터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난 한 달 동안 그에게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어했는지를 고백하고만 셈이다.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고요?”

그가 팔로 나를 감싸안았다. “그러면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싶지만, 아직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한숨을 쉬면서 부드럽게 그를 밀쳐 내었다.

“왜죠?”

“중대한 일을 제 기분내키는 대로 결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상의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지요…… 그리고 저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쓴 결혼 목록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것도 점검해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서 나는 일어섰다. “그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는 내 곁에 서서 물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일본에 갔던 일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게 일본으로 가서 그곳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지 6개월이 지난 이후의 일이었요.”

나는 상자에 다시 앉으면서 말했다.

“성경이 어떻게 당신더러 일본으로 가라고 말할 수 있지요?”

윌터가 다시 내 곁에 앉으면서 물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행하신 기적이지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들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들을 우리의 특별한 상황에 맞게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말씀이 우리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어쨌든 당신도 어떤 특별한 구절을 읽다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알지요?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게 되나요?”
나는 월터의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동안
생각했다.

“아니예요.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마음 속에 와 닿는 것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지요.”

월터는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얻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나는 내 귀를 의심하면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소리질렀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하셨어요? 우리의 결혼을 원하신다면 같은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도록 해요!”

월터는 주저하며 말했다.

“조…… 좋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낙심한 얼굴로 일찍 돌아갔다.

월요일 밤에 나는 나의 성경 몇 구절을 찾아 읽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결혼에 대해
말씀하시려면 앞으로 몇 달을 더 기다려야할지 궁금하기도 했다.

나는 침대에 엎드려서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결혼을
바라신다는 것을 저는 거의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입증해 줄
만한 성경 구절을 제게 주십시오. 저와 월터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비스듬히 기대고 누워서 성경을 열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표시를 한 다음 그 곳을 읽어내려갔다. 갑자기 “너희가
아니냐!”하는 19절의 짙막한 외침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았다.



나는 너무 놀라서 그 구절 전체를 큰 소리로 읽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 구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월터가 아니냐고 지금 제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고요한 안도감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월터를 내 배필로 선택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할까봐 꼭참고 내 침실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두 명의 동료 교사들에게 지난 밤에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눈을 반짝거리며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월터 씨가 하나님에게서 똑같은 구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일밖에 없어요.”라고 말하고 나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팻시 선생님! 그것 참 멋진 일이군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구절을 통해 월터 씨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나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4학년 선생님이 친절하게 충고해주었다.

“그래 맞아요!”

젊고 쾌활한 2학년 선생님이 큰 소리로 말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하였다.

“상상 좀 해봐요. 80살 난 월터 씨가 손에 너덜너덜하게 해진 성경을 들고 오는 모습을.”

그녀는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다른 손에는 성경을 든 시늉을 하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절룩거리며 내게로 다가왔다. 그러더니 빠른 소리로 말했다.

“패엣시, 이 구절이 맞나요?”

그 다음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집어 들고 그 구절을 조사하는, 눈이 어두운 할머니 흉내를 냈다.

“아니예요, 월터 씨 가서 다시 찾아봐요!”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나는 나의 일시적인 기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킨 것이 아닌가 해서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그날 저녁 월터의 전화를 받자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그에게 해주었다. 나는 그 구절이 데살로니가서에 있다는 말을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잘 됐군요.”

월터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위해 기도드릴게요.”

나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그러나 나는 오래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우울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월터가 금요일 밤에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에 대한 응답을 제게 주셨어요.”라고 그가 말했다.

“그래요?”

나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음, 제가 성경을 한참 읽어내려가고 있는데,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도 계속 읽어내려 가려고 애썼는데 자꾸만 이 구절들이 눈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여러 번 되풀이해 읽었지요. 그것을 보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하고 생각했어요. 그 구절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구 말구요.”라고 나는 말했다. 나는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13절이에요.”

“오……제가 하나님께 받은 구절과 똑같지는 않군요.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실망하지 않은 척하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전화를 거는 중이라 옆에 성경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제게 그 구절을 읽어주지 않겠어요?”

나는 실망이 되어 주방용 의자에 푹 주저앉고 말았지만, 그래도 그의 말을 들으려고 애썼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윌터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경 구절들을 읽고 있는 동안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평화가 넘쳤다. 그래서 나는 의자에 푹바로 일어나 앉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구절은 아니지만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하니 기운이 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함께 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훌륭한 구절들이군요. 이 구절들은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는 갑작스런 사건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어지러워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팻시 씨, 전 내일도 출근을 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지 않으면 사크라멘토로 가는 길에 당신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일본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다. 나는 윌터가 기독교인이 된 직후에 그에 대해 그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나는 편지를 뜯고 윌터에 관한 부분을 열심히 읽어보았다.

“윌터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니 기쁘구나. 정말 멋진 남자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그와의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가

진정한 기독교인인지를 확인해야 할거야. 선부르게 믿는 신자가 불신자보다 더 나쁠 수가 있거든 마태복음 6:21절에 “네 보물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지. 그가 그의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알 수 있지. 그 사람은 수입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주님 저는 진정한 기독교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월터가 하나님께 헌신적이라는 증거도 많이 갖고 있어요.”

나는 해명이라도 하듯이 그 편지를 바라보았다.

“헌신이라는 말에는 십일조를 바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요. 월터가 그런 것을 알기에는 아직 믿음이 어렵니다. 그는 어쩌면 수입의 십분의 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조차 모를지도 몰라요.”

나는 어떻게 하면 그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서 그가 십일조를 드리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궁리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월터가 와서 내게 십일조에 관한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이 달 월급에서 십분의 일을 떼어놓았습니다. 이 헌금을 어디에 바쳐야 하나요?”

“출석하는 교회에 바치세요.”

나는 속으로 하나님께 미소를 보내면서 말했다.

월터는 일 주일 내내 직장에서 시달리고 밤늦게 운전용 해서인지 몹시 지쳐보였다. 그에게 뜨거운 차를 한 잔 대접하고 나서, 우리는 응접실의 벽난로 곁에 조용히 앉아있었다.

“TV 시청하시겠어요?”라고 내가 물었다.

“아니, 됐습니다. 저는 몹시 피곤해서 긴 프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말씀하신 결혼 목록에 관한 말을 왜 제게



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군요. 그것은 남편감 명세서예요. 11개월 전에 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썼어요. 제가 그것을 가져올테니 하나님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좀 보세요.”

나는 벽장으로 가서 책들을 넣어둔 상자에서 그것을 꺼냈다. 내가 응접실로 돌아왔을 때, 월터는 의자에 기대고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제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표정으로 그가 물었다.

나는 처음 세 항목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읽어내려 가면서 통과시켰다.

“1번 기독교인……통과. 2번 일본계 미국인……통과. 듣고 계세요?”

하품을 썩어삼키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물었다.

“예, 계속하세요.”

그는 더 편한 자세로 고쳐 앉으면서 대답했다.

“4번 헌신적인 기독교인……통과.” 나는 그가 십일조를 떼어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미소지었다.

“5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답을 얻은 경우……통과.”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에 여전히 놀라고 있었다.

“6번 평화……통과. 7번 키가 3내지 6인치 큰 사람……키가 얼마나 돼요?”

“5피이트 5인치”

“저는 정확히 5피이트예요.”

“통과.” 그가 웃으면서 말했다.

“8번 나이가 2살 내지 6살 더 많은 사람”

“통과.” 그가 말했다.

“9번 일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통과, 통과.” 월터가 대답했다. 그는 피로가 가신 것처럼 보였다.

“10번 성이 짧은 사람.” 나는 월터의 성이 오다라는 것을

생각하고는 미소를 지었다.

“통과,” 그가 말했다.

“더 짧으면 사람들이 머리 글자로 오해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11번 하나님이 우리 집으로 데려다 준 사람……통과.”

나는 월터를 멀리하려고 애쓴 적이 얼마나 많았으며, 하나님이 그를 우리 집으로 데려다 주신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12번 기적적으로 죽음을 피한 사람.”

월터가 정신이 번쩍 드는지 갑자기 똑바로 일어나 앉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깜짝 놀라 말을 더듬었다.

“저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 신앙감이 죽음의 위협에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어 한밤중에 잠이 깬어요. 그리고 제가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말을 듣던 월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가벼워질 때까지 밤중에 계속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가 제 마음에 평화가 임하더군요. 그 다음에야 잠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월터는 말없이 나를 응시했다.

“왜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내가 물었다.

“2년 전 6월에 저는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거든요.”

월터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 안은 피로 흥건했습니다. 후에 제 차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했다더군요.”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팻시 씨……제가, 당신이 일본에서 기도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방안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놀려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나는 조용히 그 목록을 집어들었다. 그 목록을 쳐다보니, 항목마다 표시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종이의 뒷면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윌터 씨,” 나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말없이 우리는 체크된 목록을 바라본 다음 서로를 쳐다보았다. 놀라운 평화가 나를 압도했다. 우리의 눈길이 마주쳤을 때, 나는 그도 하나님의 놀라운 확증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우리의 결혼 결정을 알리자, 양가 부모님들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우리는 약혼 소식을 종매인과 친지와 친구들에게 알렸다.

그 후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8개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우리의 사랑을 보다 풍성하게 해주셨으며, 놀라운 사건들로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해주셨다.

침침장을 인쇄할 무렵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한밤중에 깊이 잠들어 있는데,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고통치는 시구(詩句)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휘청거리면서 나는 불을 켜고 그 말들을 비망록에 갈겨 썼다. 그 다음 시구가 또 들려왔다. 그래서 나는 그 소리가 멈출 때까지 계속 적어 내려갔다.

그 다음 날 아침 잠결에 쓴 것을 읽어보니, 그것은 영낙없이 윌터에게 바치는 시, 곧 리듬과 가락이 있는 결혼 소넷이었다.

내 신랑인 당신께 엄숙하고도 경건하게 서약하나이다.
평생동안 당신만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로 믿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당신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제 생명을 당신의 배려에 맡기겠습니다.
이날 이후로 일평생 당신과 함께 살면서
함께 꿈을 꾸고 일하며, 당신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햇빛이 비칠 때나 비가 올 때나
우리 가운데는 평안과 진정한 만족이 있으리이다.
병이 들어서나 건강할 때나, 잃었을 때나 얻었을 때나
매일 건강한 목적을 갖고 살리이다.
이 땅의 순례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사랑도 계속되리이다.

우리는 8월 중 하루를 잡아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수많은 친구와 친지들이 교회로 모였다. 그 교회는 10개월 전에 윌터가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 교회였다. 촛불이 켜지고 성가대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신부 들러리들과 신랑 들러리들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목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여 오르간과 피아노 연주자들에게 결혼 행진곡을 연주하라는 신호를 보내셨다.

레이스가 달린 삼아색 가운을 뒤로 축 늘어뜨린 채, 나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리어 긴 통로를 지나갔다. 나는 나의 주일학교 선생님인 요안과 그녀의 어머니 스미드 여사가 손님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이후로 그분들은 기독교인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오셨다. 오늘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경축하기 위해 먼길을 달려오신 것이다.

감단에 서 있던 윌터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독창자가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다. 나는 부드러운 베일 사이로 윌터의 눈을 응시하다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우리는 목사님의 뒤를 따라 성혼 서약을 하고 부부가 되었다. 어린 아이였던 내가 요안 선생님의 뒤를 따라 기도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던 그 옛날의 일을 잠시 회상해 보았다.

지금 나는 그때와 똑같은 확신을 갖고 윌터의 눈을 쳐다보며 또 한번 맹세했다.

“나, 팻시는 당신 윌터를 남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소중히 여길 것이며 다른 사람은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당신계만 충실하겠습니다.”



끝맺는 말

본서 편집 책임자에게서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 한 마디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는 월터에게 쓰라고 요청했다.

“그 후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월터가 웃으면서 재빨리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의 대답이 재미있고, 또 우리의 십삼 년 간의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했다고 여기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 사이 우리는 가끔씩 다투기도 했지만, 그런 다툼을 통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속으로 미소를 보였다.

결혼한 이후로 우리는 졸곧 캘리포니아 주 산조에서만 살았다.

월터는 그곳에서 지금도 전기 기사로 일하고 있다. 우리는 산요세 오픈 바이블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이 교회에서 예수님과 사람의 사랑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훌륭한 기독교인들의 친교 모임에 항상 참석해왔다.

결혼한 이후 나는 교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른 분야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내게 길을 열어주셨다. 결혼 초에 하나님은 방과 후 성경반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명을 내게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반의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부여해 주셨다는 말을 듣고 월터도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우리가 낳은 자식은 없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 또다른 계획을 세워주셨다. 기독교인 친구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간증하기 위해 우리 집에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모임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도 이 모임에 초대했다. 곧 우리 모임은 매주 모여 친교를 나누며 성경 공부를 하는 멋진 모임으로 발전했으며 이 모임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수 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싹트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이상한 구애 과정을 기록한 이 책이 그 결과이다.

우리의 결혼 기간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활동들을 회상해 보건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으신 주 예수께서 늘 우리를 주관하셨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됨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 결혼 생활의 사랑과 기쁨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모든 생활을 만족시키는 원천이심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에게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에게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에게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목회자료사를 상징하는
옆의 마크는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신자들이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상·하)와
이웃과의 관계(좌·우)를 바르게 정립하도록
생명의 꿀을 공급하는 문서시역을 의미합니다.

영혼으로 다가오는 사랑 · 팻시 오다

값2,000원



성경과 함께 보는 지도

사이몬 젠킨스 / 박현덕 옮김

본서는 성경의 생생한 사건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그 사건의 진상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국판 · 128면 · 컬러판 · 5000원)



하박국 강해

마틴로이드 존스 / 박영옥 옮김

저자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실까?' 라고 하박국이 고민했던 물음을 부여안고 씌름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몸부림에 참여하도록 일깨워 줍니다.

(사륙판 · 109면 · 1500원)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실까?

마틴로이드 존스 / 박영옥 옮김

이 세상의 전쟁과 폭력과 온갖 죄악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옳은지를 규명하는 자극적이고도 도전적인 책입니다.

(사륙판 · 128면 · 1800원)



목회자료나

• 영화으로 다가오는 사랑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담?
팻시는 몹시 놀랐다.
그녀는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남자와
맞선을 보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것이 오랜 관습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왔어!”
그녀의 여동생이 소리쳤다.
팻시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헤드라이트 불빛이 집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하였다
자동차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현관에서 구두터는 소리가 들리고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다
팻시는 아무도 무릎을 꿇고있는
자기 모습을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라면서
현관문을 열었다.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현관에
그녀의 친구들이 서 있고
그 뒤에서 고대하던
그녀의 신랑감이……